

‘특별귀화제도’ 도입 재외 우수인재 유치

정부,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이민자 지원 강화

앞으로 재외 우수인재는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할 수 있는 특별귀화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재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 사회 통합 등을 위해 중앙부처 1,747억원, 지방자치단체 1,5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24개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글로벌 우수인재를 계속 발굴한다. 아울러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사증(F-4) 부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작년 76개에서 올해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맞춤형 지도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달부터 국제결

혼 안내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 각국 외국인 정책의 사례를 잘 살펴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민 정책은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면서 “올해 외국 인정 정책 시행계획이 앞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호 기자>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간담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14일 서울 마포 롯데시티호텔에서 환경대변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하위의 법인 선거법 때문에 재외국민의 선거를 제한한 적이 있었다”며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이 허용됐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0 월드코리아 대상’ 시상식

2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본지가 후원하고 월드코리아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2010 월드코리아 대상’ 시상식이 내달 8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립니다.

수상자는 리더십 분야에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 문화 분야에 하용화 뉴욕한인회장, 국가브랜드 분야에 김우재 월드옥타이사장(인도네시아), 커뮤니티 분야에 박종범 오스트리아한인회장, 언론 분야에 김삼 연변조선족글로벌네트워킹 대표 등 5명.

월드코리아 대상 선정위원으로 는 이기택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윤경로 재외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김길남 해외한민족포럼 총재,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 김문기 상지학원 설립자, 이갑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가수 설운도, 양창영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신승일 한류문화산업포럼 회장, 이동렬 동북아신문편집국장, 이종환 본

지 대표가 수고를 하셨습니다. 시상식에 오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자리가 한정된 관계로 본지 편집국(02-6160-5352)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사령>

- 1월 11일자 -
 命 논설주간: 탁계석
 命 편집부국장: 이승호
 命 편집부국장: 이재경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명박 대통령 역사박물관 건립 상황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박물관 건립 상황과 전시물 수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박물관 설계와 공사 공정 등 건립현황과 함께 향후 전시물품의 종류와 수집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김항식 총리 스페인 현지 동포간담회 개최

김항식 국무총리는 7~8일 스페인을 방문해 사빠페로(Zapatero) 총리 면담, 동포 및 지상사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가졌다. 김 총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작년 10월 서명된 한·EU FTA 발효와 관련 스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자前 연대총장 싱가폴한인회 초청 강연

송자前 연세대 총장 초청강연회 가 오는 26일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일류가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강연회는 싱가포르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싱가포르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가 후원한다. 선착순 200명 마감한다.



정몽준前 한나라당 대표 FIFA 회장 출마 포기

최근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FIFA 회장 선거 출마 대신 정치에 전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측근은 “그동안 축구계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발전에 기여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것이 정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월드코리아 모바일
QR코드를 눌러보세요

동포교육 강화...여야 의원 한목소리

임해규, 안민석, 김성곤 의원 법률안 발의

240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정치인들의 동포사회 나들이가 한층 빈번해진 가운데 '동포 교육 강화'를 외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재외동포교육 지원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교육 전문가들을 접촉,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처리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법안이 김충환(한나라당), 김영진(민주당) 등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았고 여.야 의원 다수가 재외동포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지난해 7월 24일 재외국민 자녀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2009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재외동포교육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캐나다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간부들과 만나 "재외동포교육청과 해외교민청 설치 등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



를 재외국민을 위한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고 약속하는 등 정치권의 재외국민교육청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동포교육을 담당해 온 여러 기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동포 자녀의 정체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데다 재외동포청을 추진하는 외교통상부와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안으로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정상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외동포 지원 확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8월께 정부 출연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동포교육 업무를 상당 부분 이관하고 교과부는 기획과 정책결정, 감사 등을 담당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재단의 강남훈 이사도 "재단 법(3조3호)에 재단이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와 홍보사업', 재외동포학생 장학사업' 등 동포교육을 맡도록 명시돼 있다"며

"다른 기관이 설치돼 동포교육을 맡게 되면 기관 간 상충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욱 기자)

외교통상부는 올해 재외공관이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의 통상 마찰이나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한 사례를 수록한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70개 공관에서 보고한 182개 사례가 △통상

재외공관이 현지 정부를 접촉·설득한 성과로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 사례집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사례를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발간

외교통상부, 70개 공관에서 보고한 182개 사례 수록

마찰 해결 및 지원 사례,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사례,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기타 지원 사례의 5개 항목으로 구분, 수록되어 있다.

사례집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하여

만났을 때 재외공관으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동 사례집을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재외공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영욱 기자)

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20개국 총 123건 집계

외교통상부, 2010년도 수입규제 대응 현황 발표

외교통상부는 현재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이며, 인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으로부터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외교통상부

는 대응이 필요한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품목분류, 강제인증, 라벨링 포함)에 대해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4건에 대해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 6천만불에 달하며, 상기 관세부담 경감액은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할 때 약 74억불을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기자)

법무부, 재외동포 고충해소 대상 확대 실시

1949년 10월 이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 등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의 5가지 업종으로 해당 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ps.go.kr) 또는 팩스(FAX)를 통해 외국인근

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축산업'을 '축산업 관련 분야'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로 세부 분류하고,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진호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장기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재외동포들의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 고충해소 신청대상을 일부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보다 간소화하였다.

신청대상은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도과자도 포함)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



문취업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고충해소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 이후 국내에서 4년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가능토록 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

을 받아야 한다.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1949년 10월1일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하다.

신청은 체류허가신청서, 대상여부 입증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 가능하고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불법체류 재외동포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6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예상했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65세 이상 국적 만6개월 체류후 서약서 가능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12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회장과 최학선 미주공동대표가 난민과를 찾았다. 국적회복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 법안이 올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창구에서 배회장 등에게 준비하라고 알려준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 4*5cm 1매, 국적회복진술서(사진 부착), 여권사본 1부(중국여권은 3부), 과거 국적취득사실이 등재된 재적등본, 외국국적취득(한국국적 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증서사본, 여권(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할 것), 주민등록등본(본인 말소자 등본), 동반취득자의 경우 여권사본 및 친자 입증서류. 수수료 5만원 등 이들 서류와 함께 시민권 원본을 제시하면, 국적회복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는 게 창구 지원의 말.

다음은 창구직원과 배회장간의 일문일답.

- 지금 신청하면 되는가? "된다"
- 신청하면 언제 국적회복을 하게 되는가? "심의를 한다. 심의를 마치면 신청자에게 통보를 한다"
- 심의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특정돼 있지 않다"
- 통보를 받으면 바로 국적을 얻게 되는가? "통보일로부터 1년내에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기간 중 해외에 나가도 되는가?

"서약서 제출 이전 6개월간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 만6개월 체류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 혹 신청서를 내놓고 통보받은 일로부터 1년내에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다시 국적 취득 신청을 내려 할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 거소증은 어떻게 하나?

"65세 이후 거소증을 취득한 사람은 바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거소증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 65세가 된 사람은 출국하면서 거소증을 먼저 반납하고, 재입국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이종환 기자)

월드코리아리더스



이명석 美 퀸즈 제2대 한인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가 최근 출범했다. 지난 81년 뉴욕으로 이민 온 이 씨는 교포신문과 상업에 종사해 왔으며 전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올해부터는 뉴욕 강원도 명예협력관과 강원도도민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병일 시드니한인회 회장과 운영위원들은 새해를 맞아 '듣고 만나고 실천하는 한인회'를 위한 소통의 시간과 내달 6일 민속절 축제 홍보를 위해 한인밀집 지역을 순방한다. 김 회장은 또 퀸스랜드 주 홍수로 인한 재난에 한인커뮤니티의 수재 의견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공태 도쿄한국학원 이사장겸 재일민단 부단장은 12일 "한인 동포 자녀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학교 커리큘럼은 재학생의 약 70%를 채우고 있는 상사 및 대사관 등 주재원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계송 美 세인트루이스 한인회장은 최근 메리엇 웨스트 호텔에서 열린 선거에서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총 3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는 30여 년만에 열린 직접 선거이며, 이 당선자는 현재 지역한인언론 '한겨레저널' 발행인이자 중서부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강근 재이스라엘한인회장이 이끄는 신임 집행부가 최근 출범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목회자로 활동해 온 이 회장은 구랍 21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 받아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인 유럽특허 출원 손쉬워진다

한·유럽 특허청장, 특허심사 확대 등 협력사업

앞으로 외국 출원인이 유럽(EU) 특허청에 특허출원시 본국 특허청의 기술검색 결과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한국 출원인이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이 한·EU특허청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베피스텔리 유럽특허청 청장에 이 같은 협조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1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특허청과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 간의 청장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원 청장과 베누와 바피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 특허청장은 인적 교류, 정보화 시스템 및 데이터 교환, 특허 심사 분야 협력을 포함한 9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합의 내용은 ▲신속한 특허 획득을 위한 특허심사 분야 협력 ▲고품질 특허 심사를 위한 기술정보 데이터 교환 ▲특허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분야 협력 ▲한국 출원인 대상 유럽특허제도 세미나 개최 ▲양청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문가 인적교류 등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협력사업 합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로 유명한 유럽 특허청이 세계 5대 선진 특허청의 하나인 우리를 전

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각 청의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하고, 선진 5개 특허청 그룹 논의에서의 긴밀한 공조 합의도 이루어졌다.

현재 유럽 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은 지난 1977년 설립돼 유럽지역 특허행정 최대기구로 3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외국유학생 44명 '서울시 글로벌인턴십'

외국인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 서울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미국, 러시아, 스웨덴 등 20개국 출신 외국인유학생 44명을 선발해 1월 7일부터 5주간 서울시 각 부서에 배치해 시정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실

시하고 있는 '서울시 글로벌인턴십'은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체험프로그램'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외국인유학생에게 시정체험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경력발전과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울시는 외국인인턴을 통해 서울을 홍보하고 이들을 잠재적 외교인프라로 육성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선발된 외국인 인턴들은 겨울 방학기간동안 국적 및 전공, 관심분야에 따라 해외 도시와 교류업무가 많은 서울시 19개 글로벌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해외사례 분석 ▲외국인 불편해소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재경 기자)

대국민·재외동포 소통 위한 업무 협정

외교통상부와 NHN은 지난 4일 대국민, 재외 동포와의 소통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을 지원하고, 외교 국가별 콘텐츠 및 정세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휴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외교부는 NHN이 운영하는 마이크로블로그 미투데이(me2day.net)를 활용해 다양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또 향후 외교 국가별 콘텐츠 및 정세 정보를 국민들과 직접적으



로 소통하며 전하고자 현 재외공관과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네이버에서의 검색결과와 네이버캐스트에 순차 반영, 해외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김영욱 기자)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 40명 선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1년 제10기 여성가족부 국제전문여성인턴' 40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제10기 인턴은 국제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뿐 만 아니라 유엔대학(일본 동경소재), 칭화대학(중국 북경소재) 등 해외대학원 재학생과 경찰행정학, 건설환경공학 등 예년에 비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포함됐다. 대다수 인턴이 국제개발, 인권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나 예년에 비해 국제범죄, 도시설계, 공정무역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도 많아 다양한 영역의 국제기구로의 진출이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는 국제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위한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내실있는 국제전문 여성인턴 양성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민족 정체성 지키며 아이들 잘 키워 감사”

파라과이 한인학교서 울어버린 김황식 총리

남미를 순방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 시간) 파라과이의 한국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학교를 둘러본 뒤 학생들의 학

예회와 재롱잔치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했다.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무용과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고 한국 노래도 불렀다.

비디오 시청이 끝나고 인사말을 해야 할 김 총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지만 울음은 한동안 계속됐다. 김 총리를 수행한 총리실 직원들과 현지 교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잠시 후 김 총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국만리에서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가 합심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뜻을 모아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나가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체성 유지와 함께 파라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도 재외동포, 특히 한국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992년 문을 연 이 학교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76명이 재학 중이며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민과 현지

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교민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교민간담회에 참석해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초등학교를 훌륭히 운영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학예회 장면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토로했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파라과이는 1965년부터 한국인 농업이민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파라과이를 거쳐 간 한인인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350달러에 불과해 교민들도 대부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외국에 나가 고생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파독(派獨) 광원과 간호사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얻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눈물을 보였다.

〈아순시온=김홍기 특파원〉

새해 세계시장, 4 NEW를 주목하라!

신시장 개척 등 무역 1조달러 목표

2011년 세계 시장 공략 키워드로 ‘4 New’가 제시됐다. New Market(신 시장), New Product(융복합·혁신제품), New Energy(신재생에너지), New Consumer(신 소비자)를 뜻하는 ‘4 New’가 우리 수출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OTRA가 지난 6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한 ‘글로벌마켓 포럼’에 참석한 KOTRA 7개 해외 총괄 센터장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화두로 던지며, ‘4 New’ 전략을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우리 수출기업인 약 7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2011년 글로벌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이 제시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격

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우리나라가 수출 7위를 달성한 것은 우리 수출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올해에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수출기업의 열정을 믿고 무역규모 1조달러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조환익 KOTRA 사장은 개회사에서 “연평도 사태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바이어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 1조불 시대를 여는 2011년은 우리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환경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미개척 신시장과 신규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경 기자〉

美실리콘밸리 한인네트워크 1천명 시대 열렸다

구글·애플 등 첨단기업 종사자 모임...80% 석·박사



미국 첨단기술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구글과 애플, 인텔 등 글로벌 IT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하이테크 종사자들의 모임인 ‘베이에리어 K-그룹’(www.bayareakgroup.org)의 회원 수가 1천명을 돌파하며 급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실리콘밸리 거주 엔지니어 등 26명이 모여 한국인 IT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2월 회원 140명으로 정식 출범한 지 근 3년 만이다. 9일 현재 회원수는 1천2명.

이 같은 K-그룹의 급성장은 90년대 닷컴 붐을 타고 밀려온 중국, 인도계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파워그룹으로 부상한데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인들도 활발한 정보교류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머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 수가 2천~6천명에 달하는 중국이나 인도의 실리콘밸리 내 단체에 비해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인종, 국가를 기준으로 한 모임으로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와 함께 3위 수준으로도 약한 것이다. 특히 K-그룹의 주축이 현재 기업 내 중간관리층인 30대 초 중반이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그룹은 그간 한국의 주요 IT대 기업들과 활발한 기술교류를 하는 동시에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흐름과 벤처문화 등을 배우려는 국내 기업인과 대학생들을 위한 견학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등 한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학석사(MBA)를 포함해 석·박사의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K-그룹은 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곳 기업에 취업했거나 부모와 함께 어릴 때 이민을 온 뒤 실리콘밸리에 취업한 한인 1세대와 1.5세대로 구성돼 있다.

〈샌프란시스코=조규일 특파원〉

‘2011 외환시장 10대 결정요인’ 분석

산은경제연구소, 환율 1080원선 전망

산은경제연구소는 2011년 원/달러 환율이 하향세를 보이며 연 평균 1,080원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국제금융포커스 1월호’에서 “2011년 외환시장의 10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주요 통화별 환율 전망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2011년 글로벌 외환시장을 움직일 10대 변수로 ▶우리나라 경기 방향성 논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지속 가능성 ▶북한리스크 지속 ▶양적완화정책 및 글로벌 유동성 ▶통화전쟁의 재현 우려 ▶미국 경제의 반등 및

국채수익률 상승 ▶유럽 재정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 지속 ▶중국, 긴축정책 및 위안화 절상 지속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경상수지 흑자세 및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은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유입 지속이 ‘11년 원/달러 환율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구소의 최호 연구위원은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데다 ‘10년 중 주요 아시아 통화 가운데서도 절상 폭이 가장 낮아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기자〉

“한인 커뮤니티 위한 서비스영역 대폭 확대”

한인봉사단체들, 2세 교육 보강 등 신년계획 다짐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한인 봉사단체들은 새해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2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인 건강정보센터(소장 예린 박)는 한인들의 질병 예방 활동에 올 한해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암 등 한인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암질환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기획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마

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홍보담당자는 “올해에는 대장암 검사 무료제공 등 한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폭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인 건강정보 워크숍을 개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청소년 자원 센터’(Teen Resource Center)를 설립해 한인 청소년을 위한 성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는 한인 청소년을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을 확대에 주력하

고 현재 운영 중인 KYCC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송정호 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지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KYCC의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KYCC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한인타운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LA=조규일 특파원〉

KIERA
by
Jean Dousset

THE MASTER PIECE

High-End Neoclassic Fashion Jewelry



925 Sterling Silver

Micro paved with ideal cut CZ stone, Plated by Platinum, Designed by Jean Dousset

[KOREA] SEOUL/ Apgujeoung Main Store +82 (0)2-3449-1015 /DEAGU/ Debec Plaza +82 (0)53-422-1079 /JEJU/ JTO +82 (0)64-780-7666
[USA] NewYork/ Main Store +1 212-725-5049 [CHINA] BEIJING/ Parkson Department Store +86(0)10-8426-9988

Jean Dousset KIERA by JD 수석디자이너 'Louis Cartier의 5대손' VanCleef&Arpels 주얼리디자이너 CHAUMET 주얼리디자이너 Boucheron 주얼리디자이너

“재일한국인 참정권 부여 큰길 열자”

하토야마 前 日총리, 재일민단 신년회서 밝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前 총리가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부여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큰 관심이 일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도쿄의 데이코쿠(帝國)호텔 본관 3층에서 개최된 민단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여러분의 비원(悲願)외 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와 관련해 큰 길을 여는

해로 만들자”며 “참정권 부여에 대해 더욱,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여당, 야당의 구별은 없다”며 “이웃 국가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한일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사민당 당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재일

동포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의원연맹 이상득 회장과 김수한 전 국회의장, 권영건 재외동포 재단이사장과 민단 지부 임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중에서 영주의 국민의 참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도 2000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9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집권 초기에는 적극적으로었으나 당내외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최근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현성식 특파원〉

시드니한인회(회장 김병일)는 호주 브리스베인을 비롯한 Queensland 주의 큰 홍수로 인한 고통을 나누고자 수해의연금 모금에 나섰다.

한인회는 수재의연금 전달처

이번 수재의연금 납부계좌는 Bendigo Bank, 구좌이름 The Korean Society of Sydney, BSB 633000, A/C No: 139 149 900 이다.

한편 시드니 한인회는 자연

시드니한인회, 퀸스랜드주 수해의연금 모금

와 전달일자를 호주정부 수해 복구 관계기관과 접촉 후 바로 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인회는 수재의연금 입금 후 한인회로 연락 주길 당부하고, 필요시 한인회에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Queensland 주민에게 한인 사회의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퀸스랜드 주의 Premier 인 Anna Bligh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드니=조대영 특파원〉

대만, 한국여행 경보 하향조정

대만이 한국에 대한 자국민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대만 외교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 긴장상황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내렸던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전지역에 대해서 “여행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가야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종전

황색(黃色)경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회색(주의)으로 낮추었다.

다만, 북한 한계선 인근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5개 섬에 대해서는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의 붉은색(紅色) 경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여행 경보는 위험이 높은 순서상 ▲홍색 ▲오렌지색 ▲황색 ▲회색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중선양 한국국제학교 첫 고교졸업생 배출

2006년 개교 이래 첫 졸업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한국국제학교가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양한국국제학교는 지난 5일 졸업식을 하고 초등생 16명, 중학생 20명, 고교생 5명 등 모두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이 학교가 개교한 이래 고교생이 졸업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졸업한 고교생들은 전원 고려대와 연세대 등 한국의 명문대

학에 입학, 이 학교의 진학 지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학교 3학년인 황아현 양이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중국어능력평가 시험인 ‘중국어수평고시(HSK)’에서 중국인들도 따기 어렵다는 최상급인 11급을 획득,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6년 3월 개교한 선양한국국제학교는 올해 졸업생을 포함, 지금까지 초등생 53명, 중학생 49명,

고교생 5명 등 모두 10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양의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 자녀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줄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해마다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발전에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이 알려지면서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 부인회가 바자회를 개최해 거둔 수익금 3만 위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피아노도 1대 기증했다.

〈선양=우제하 특파원〉

국내 농민단체, 中동포에 영농기술 전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4년째 교육진행

우리 농민 단체가 중국 내 동포(조선족)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이들에게 선진 영농기술을 전수하려 4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동포 농업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바로 그 곳. 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내 우리 동포와 한국에 와 있는 중국동포들에게 농업교육을 해오고 있다.

중국의 헤이룽장성유기수도협회(유기농벼농사협회)가 연수대상 중국동포를 추천하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중국동포타운신문이 한국에 들어 온 중국동포 중 귀국 후 농사에 종사하고 싶은 이들 위주로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5월에 이뤄졌다. 중국내 동포 교육은 일주일 내외이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2박3일간 일정으로 실시됐다.

지도자로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사업 등을 소개해주고 있다.

또 실제 농가를 방문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쌀농법에 대해 배우고,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와 특용작물 재배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기간 농촌의 미국종합처리장이나 친환경하수처리시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관람하기도 한다.

비용은 시작 당시인 2008년엔 재

중 중국동포에게 항공료만 부담하게 하고 숙박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협회가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이같이 중국동포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해주는 것은 중국 내 조선족 마을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의 산업화로 농민들이 도시로 하나 둘 떠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비뺨’이 불어 수년 사이 30만명 넘게 한국으로 일하러 온 탓에 조선족 마을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승호 기자〉



한신대학교 ‘해외봉사단’ 인도로 출국

12~24일까지 월드쉐어 단기 해외봉사

월드쉐어는 지난 11일 한신대학교 ‘인도봉사단’ 24명의 학생들을 인도 현지로 파견했다.

한신대학교 학생들은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간 인도에 머물며 월드쉐어의 단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번 봉사단은 인도 벵갈로르(Bangalore)지역 ‘Schema School’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미술, 음악)과 도서관설립(보수, 벽화그리기) 지원활동에 동참하고, 미니운동회, 문화공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과 후원물품 전달 임무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한신대 해외봉사단 학생팀장

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무척 설렌다”며, “가난으로 소외된 인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국 전 소감을 밝혔다.

월드쉐어는 지난해 한신대와 세계봉사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며, 지난 7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등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초등교육 봉사프로그램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제3세계 빈곤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을 함께 전개해 오고 있다.

〈이규복 기자〉

뉴질랜드, 호주 홍수피해 복구 지원단 추가 파견



뉴질랜드 존키 총리는 엄청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의 홍수 피해 지역에 정부 차원의 구호 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홍수피해 복구 지원단은 미리 파견된 지원단의 추가로 소방대원과 수색대원 60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시민등 수백명의 구조

팀으로 구성된다. 현재 15명의 뉴질랜드 구호 팀은 마일즈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호주는 100년만의 최대 홍수로 재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은 도시 전체가 잠기는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1만5000여 채의 주택과 상가 그리고 150여 군데의 도로가 물에 잠겼으며, 사망14명 실종은 6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밤새 가재 도구를 옮겼고 한 가정은 물에 잠긴 집의 지붕을 거실로 삼아 대피하고 있다. 수상카페도 다리 밑으로 부서지고 30층 아파트의 주민들도 모두 대피한 상태며 호텔 등의 건물들도 대피령이 내려져 텅 빈상태다. 또 아파트 주차장의 수 십대 차들은 급 물살에 떠내려 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도시 전체가 마치 유령도시 같다고 전하고 있다.

〈오클랜드=이혜원 특파원〉

대한항공, 중동 하늘길 넓힌다

사우디아라비아항공과 가입의향서 체결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 하반기에 정식 가입하게 되며, 이후 스카이트임 회원 항공사들과 공동운항, 마일리지 제휴, 라운지 이용 등 협력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항공은 지난 1945년 설립돼 현재 149대의 항공기로 전 세계 90여개 도시에 취항 중인 중동의 대표 항공사다.

한편 스카이트임은 현재 대한항공을 포함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중국남방항공 등 13개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169개국 898개 도시에 연간 3억8500만명을 수송하고 있는 세계적 항공 동맹체다.

지난해 이미 가입 의향서에 서명한 중국동방항공과 대만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아르헨티나항공 4개 항공사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항공까지 스카이트임에 정식으로 합류하면 회원사는 총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승호 기자〉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세계적 항공동맹체 스카이트임의 중동 하늘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스카이트임은 지난 10일 저녁 9시(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의 레이 라 티 홀(leylaty Hall)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항공과 가입의향서 서명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과 레오 반 바이크(Leo van Wijk) 스카이트임 의장 등 스카이트임 회원사 대표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항공 카리드 압둘라 알몰렘(Khalid Abdullah Almolhem)사장이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항공은 가입 의향서 서명 이후 정식 회원사가

라오스 한인상공인회, 교민위한 무료 의료봉사 실시

라오스 상공인단체인 재라오스 한인상공인회(회장 배중순)는 라오스에 거주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5일 오전 9시부터 비엔티안 코스모호텔에서 실시하는 의료봉사 단체는 '사바이다'와 '한국의대 봉사클럽'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순천향의대 강남성심병원 우지영 부교수를 비롯해 6명의 전문의와 경희대의대 재학생 5명 등 총 12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일반의과와 진단방사선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진료 등 과목별로 나누어 진료가가 이뤄졌다.

라오스 의료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재라오스 한인상공인회 최지호 총무는 "특별한 질병과 특이사항이 있는 교민은 사전에 미리 연락하면 그에 적합한 의료장비나 약품을 미리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이 질병 보유자는 상공인회 관계자나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미리 연락을 취한 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의 세부 진료내용과 참가하는 의료진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료봉사회 명단
순천향의대 강남성심병원 진단방사선과 우지영 부교수/ 안산 우

성여성병원 산부인과 이원식 과장 /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흉부외과 최주원 조교수/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김승환 전문의/ 분당제생병원 산부인과 이수운 과장/ 일반의과 김한수 전문의/ 경희대의대 의료원 편승연 선생 외 의대 재학생 5명
〈비엔티안=박찬희 특파원〉

라오스 코리아그룹

교민들 위한 '한국인의 날' 개최

한상기업 최초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한 코리아그룹이 라오스 전 교민들을 초청, 한국인의 날을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저녁 라오스 메콩강변 돈찬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교민 행사는 'Opportunity & Beyond(기회,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코리아그룹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라오스 경제를 좌우하는 코리아그룹 오세영 회장의 강의로 진행된 1부에서는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오 회장 사업 성공 비결인 '역발상' 등 다양한 아이디어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코리아그룹 오세영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상기업 최초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금융정책인 '햇살론'과 비슷한 취지의 '라오스교민 창업 지원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운영방안을 내 제시했다. 오 회장은 자신이 우선 10만불을 출연하고 이를 종자돈(시드머니)으로 한인단체와 코리아가 공동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 방안으로 코리아와 한인단

체 임원이 사업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겠다는 실질적인 지원프로젝트다.

이번 계획은 '교민이 돈을 되갚는 형식이 아니라 지원받은 사업자금의 일정액 이상을 교민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다시 기부하는 방식'으로 많은 교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세영 회장은 특히 교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기부금을 100만불 이상 추가로 출연하고,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가능성여부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엔티안=박찬희 특파원〉

한반도 긴장, 캄보디아 한국식당가에 불똥

북한식당 자제 요청 업소에 보복 이뤄져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으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 여파가 캄보디아 한국 식당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 현지 일간 프놈펜포스트는 천안함 침몰 이후 현지 한국 식당들이 북한 업소 보이콧에 나서자 북한 측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업소를 상대로 보복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평양냉면 등을 파는 북한 식당이 관광객 밀집 지역인 시엠립에 두 곳, 수도 프놈펜에 한 곳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한국 정부 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자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 한국 업체에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현지 한인단체는 전했다.

박정연 재캄보디아한인회 사무국장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사관

이 한국 식당과 관광업계에 북한 식당을 찾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프놈펜포스트에 밝혔다.

이후 한인회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함과 더불어 한국 관광객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적힌 스티커와 표지를 현지 한인 식당에 나눠주고 업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자 얼마 후 한인 식당 두 곳에 괴한들이 찾아와 업소에 붙은 스티커와 표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고 사라졌다.

업주들은 이들이 북한 측 요원이라고 주장했고, 프놈펜포스트는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 대사관은 현지 한인 업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업소들이 북한 규탄 문구를 써 붙인 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대사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해외취업·인턴십 'World Job Fair' 개최

해외취업 인턴십 축제 'World Job fair'가 16일 부산을 시작으로 개최된다.

최근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인턴 및 아르바이트 경력'과 '영어 회화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는 업무 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 너도 나도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까다로

운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는 어렵지만 돌파구는 있다. 국내취업이 아닌 해외취업 인턴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해외취업 인턴십은 영어와 실제 업무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어서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이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들 중 올바른 유용한 해외취업 인턴십 정보를 얻기에는 쉽지 않다. 점점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 속에서 잡네트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대의 해외취업 인턴십 축제인 'World Job Fair'

를 개최한다.

이번 'World Job Fair'는 국내 최대의 해외취업 인턴십 박람회로 해외취업 담당자가 직접 참가하여 생생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신뢰감 넘치는 일대일 맞춤 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World Job Fair'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보다 생생한 해외취업 정보를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1월 21일(금) 오후 2시에는 '미국 인턴십 설명회'보다 넓은 세상에서의 경험, 22일(토) 오후 2시 '국제기구 인턴십 설명회'도 전하는 젊은이를 위한 UN 취업 세미나'를 주제로 열린다.



제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에 투자하여
성공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702-702 Tel : 82-53-950-2174 Fax : 82-53-950-2178

美 주류 한인 정치력 결집, 미래 펼친다

‘한미 정치 컨퍼런스’ 3월 LA 개최

미국 주류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전·현직 정치인들과 차세대 리더들, 한국의 정치인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정치인 컨퍼런스가 오는 3월 LA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재외동포재단, 미주동포후원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제1회 미주한인 정치인 컨퍼런스 및 차세대 리더십 포럼’은 미국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한인 정치인들과 1.5세, 2세 차세대 리더들 및 한국 정계 거목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및 차세대 리더 양성과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한인 권리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인 사회 발전을 꾀하는 의미있는 행

사다. 10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주 한인 이민사회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정치인 컨퍼런스 행사는 이번 대회가 사상 최초다.

이번 대회에는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 조세형평위원과 강석희 어바인 시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강영우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위원 등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은 물론 고경주 연방 보건부 차관보, 고흥주 연방 국무부 법률고문, 크리스토퍼 강 백악관 특별보좌관 등 연방과 각 지역 정부의 한인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한국에서도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나경원 최고위원, 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거목급 정치인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 기간 전체회의를 갖고 정치 발전을 통해 미국 내 한민족 위상 제고와 한인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미국 내 정치력 신장 및 조직적 영향력 구축 방안 ▲대한민국 참정권과 한인사회 혜택 ▲정치력 신장과 참정권 부여를 통한 한인사회 미래상 확립 등의 주제로 열띤 패널 토론을 벌이게 된다. <LA=조규일 특파원>

미국 뉴욕시 올 회계연도 노인 복지 예산 감축계획이 철회돼 한인 노인단체들이 안도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8일자로 보도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는 당초 노인복지 가운데 케이스 메니지먼트 분야 330만달러 예산삭감을 추진했

복지에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산삭감 계획이 취소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KCS 코로나경로회관의 헬렌 안 관장은 “KCS뿐만 아니라 사전 심사기관도 케이스 메니지먼트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데 예산이

뉴욕시 노인 복지예산 감축 취소

한인 노인단체 안도...미주 한국일보 보도

지만 6일 노인복지 부문의 타격을 우려한 뉴욕시의회의 설득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스 메니지먼트 분야는 사전 적격심사 통해 수혜대상을 정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홈케어와 가정간호, 무료 급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뉴욕한인 봉사센터(KCS) 김광석 회장은 “케이스 메니지먼트는 한인 노인

삭감될 경우 인력이 줄어 사전심사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받을 자격이 되도 당장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며 예산 복원을 크게 반겼다. 한편, KCS 코로나 경로회관은 플러스와 코로나 잭슨하이츠 등 퀸즈 일원 60여명의 한인 노인을 포함한 90여명의 저소득층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성료

이주 108주년 맞아, 14일 LA시 의회서



LA시 의회에서 14일 오전 10시 LA한인 이주 108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선포식은 한인타운의 중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Tom

Labonge 시의원(4th District)이 진행했다.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 참석한 스카렛 엄 LA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되

도록 가장 먼저 의결해 준 LA시의회에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인들도 미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축사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LA시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기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LA시의회에서는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Resolution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에는 LA한인회 스카렛 엄 회장, 김재권 이사장(대회장), 이정희 부회장, 신금순 부회장,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회장, 정시우 이사장, 이태형 이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날 참석했다.

美 시카고에 한국 곡물회사 설립된다

밀·콩·옥수수 등 직도입해 물가 조절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에 대규모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곡물과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곡물을 그동안 해외 메이저사를 통해 사다 보니 투기적인 세력 등에 의해 국내 곡물 가격이 출렁이는 문제가 발생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시카고에 곡물회사를 설립해 직도입하는 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 미국에 설립될 국제곡물회사는 정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주축을 이루면서 실수요업체, 종합상사, 운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 900만톤, 밀 370만톤, 콩 150만톤 등 총 1,420만톤으로, 거의 전량을 곡물 메이저가 장악한 독과점시장을 통해 구입했다. 정부는 올해는 민관합동 국제곡물회사를 통해 콩과 옥수수를 각각 5만톤씩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경 기자>

加한인회 회장선거 · 회관증축 등 분주

캐나다 주요 한인단체 신년계획 발표

2011년 새해를 맞아 캐나다 한인사회의 주요 단체들은 선거를 비롯한 새해사업과 생존전략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다. 우선 토론토한인회는 3월19일 치러질 차기 회장선거가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사무국 직원들은 회장선거가 잡음 없이 치러지도록 관련 행정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장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4월 정기총회 준비에 들어간다. 올 총회에서 신규 회장단이 임무교대를 한다. 또 한인회관 1층 강당에 걸쳐 있던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배너를

교체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기존 배너는 너무 낡고 규격도 동일하지 않은 것들이라 지난해 여름 이명박 대통령 교민간담회 직전에 내려놓았다. 한인회 측은 한국 행정안전부에 연락, 지자체리스트를 받아 동일한 규격의 배너를 새로 주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골프대회 등 각종 연례행사는 회장단이 교체되더라도 큰 변화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토론토한국노인회는 회관증축을 주요사업으로 꼽는다. 고학환 회장에 따르면 노인회는 시로부터 증축허가를 받고 건물 뒤쪽 주차

공간까지 회관을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 작업 중이다. 노인회는 구체적인 공사견적은 설계가 끝나야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회가 회관 증축비용으로 확보한 자금은 35만여 달러. 세금 신고·노인아파트 신청·여권 신청 등의 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취미 관련 활동과 연례행사(효도예술제·워커톤 등) 계획은 예년과 비슷하다. 이밖에 12월엔 차기회장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경제관련 단체들은 생존전략에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온타리오실협은 담배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손태환 특파원>

워싱턴주 범동포 한인의날 축제 개최

정정이 준비위원장, “한인위상 높이는 행사”



워싱턴주 범동포한인의날 축제 재단에서 8일 한인 단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식을 1부 행사로 진행하고, 이어 올림피아 주청사 메인홀에서 동영상상영과 공연 등 2부 행사를, 이어 6.25 참전용사와 입양아를 위한 위로행사인 3부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워싱턴=김한주 특파원>

2부 행사에서는 워싱턴주 한인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동영상 상영과 태권도 시범, 퓨전국악 공연, 합창과 한국 무용 공연 등이 선보였다. 이 행사를 준비한 정정이 행사준비위원장은 “놀랍도록 발전한 조국 대한민국을 미 주류 사회와 1.5세 2세대 들에게 알리는 한편, 동포사회의 상공인과 전문인들 및 차세대 지도자들이 미 주류 사회 진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동포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한인 동포들의 위상도 높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총영사가 적극 지원했어요”

LA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의 최학선 원장



“해프는 동네가 되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12일 본지를 찾은 최학선 회장은 LA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의 ‘프레지던트’라고 적은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교육원 3층에 선라이즈 커뮤니티 클리닉이 있다. 교민들을 상대로 무료진료와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다.

“15명의 한인 의사들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스트 덴탈이라는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듯이 이 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병원

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현직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인들에게 무료 진료와 치료를 해준다는 얘기가. “월수금은 내과와 산부인과, 척추 신경과 의사들이 나옵니다. 화요일은 한방, 목요일은 치과지요”

치과의 경우 하루 치료하는 환자가 30명.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치가 밀려있다고 한다. 치과만 무려 600명이 예약해서 치료를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김재수 총영사가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교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했어요. 그때 한글학교 교사들이 얘기하더군요. 어려운 집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도 못나온다고요”

이 얘기를 들은 김재수 총영사의 요청으로 의사들이 뭉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2년여전 LA 한인타운에서 오픈했고, 이어 오픈지카운티에도 새로이 문을 열었다는 것.

같은 치과의사인 김학철 원장과 마취과 의사로 지난해 말 LA지역

시의원에 당선된 서영석 회장, 서울 병원 원장 등 15명이 자원봉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최원장은 설명한다.

치료봉사도 있지만 교육봉사도 있다는 게 최원장의 얘기.

“변호사로 계시는 민병수회장이 청소년과 법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을 가르칩니다. 한인박사들이 모인 민들레재단은 가정 이혼 재혼 청

소년 상담을 해주고, 청소년 두뇌개발, 속독법, 금연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선라이즈 커뮤니티에서 이뤄진다는 게 최학선 원장의 소개.

LA 한인사회를 해프는 동네로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최원장은 호소했다.

〈이종환 기자〉

김동극 청도한국인회장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수고했지요”



16일 KBS 전국노래자랑 청도편 실황녹화

“청도시가 우리 행사에 2억원 가량을 지원했어요. 국신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지요”

청도 세계공원 옆의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15일 김동극 청도한국인회장이 소개한다. KBS 노래자랑 청도편을 준비하는데 든 비용은 모두 5억5천만원 가량. 이중 3억여원을 교민들이 모금으로 충당하고, 청도시도 체육관을 제공하는 등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가수를 포함해 KBS에서 120명의 스태프가 파견돼 들어왔어요. 행사 준비하느라고 네번이나 사전 방문을 했구요”

그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어떻게 모금하는지를 알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지난해 10월 한인주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2만여명이 행사에 참여해 기뻐하더군요. 이들이 외롭구나, 그 외로움을 달래자, 그래서 서로 뭉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KBS 노래자랑을 유치했던 것이지요”

KBS 노래자랑 청도편은 16일 실황녹화돼 오는 설날 특집으로 전 세계 안방에 방영된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출연자 70~80%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청도에는 한국인 10만명, 조선족 동포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노래자랑은 이들 서로가 어울리고 감정을 교류하는 마당이라고 소개했다. 〈이종환 기자〉

“미주 한인 서비스 개선 내실 다지는 한해”

LA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송정호 관장

청소년회관에서 진행중인 각종 프로젝트와 한인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실을 굳건히 다져 커뮤니티에 더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미국 LA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의 송정호 관장은 한인사회의 대표적 봉사단체 중 하나인 KYCC의 새해 운영 계획을 이같이 밝히고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관장이 밝히는 올해 가장 큰 목표는 ‘프로그램의 영향력 평가를 통한 내실 다지기’와 재정 유지다. 시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삭감이 올해 가장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YCC 송정호 관장은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2년 전보다 올

해가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현재 KYCC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송 관장은 “올해는 KYCC에서 운영하는 수십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고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아왔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할 것”이라며 “KYCC 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송 관장은 “KYCC는 한인을 비롯한 다민족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커뮤니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KYCC가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봉사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큰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LA=조규일 특파원〉

“동포 젊은이들 초청 ‘겨레일 연수’ 시킬 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재외동포 젊은이들을 초청해 ‘겨레일 연수’를 시켜야 할 때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겨레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한양원(88)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실시하는 ‘겨레일 연수’가 새해 으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는 700만명을 헤아린다. 한 회장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

해 지난해 11월 독일을 다녀왔다.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자녀가 벌써 30~40대가 됐고, 그 자녀들도 벌써 성인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963년 8000명 가까운 젊은이가 광부로, 1966년에는 1만여명의 간호사가 독일 땅을 밟았다. 험벗고 굶주린 시절 한국 정부는 이들이 받는 월급을 담보로 차관을 들여와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그들은 어느덧 70대 전후가 됐다.

한 회장은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2, 3세대의 조국관은 희박하고, 그 때문에 1세대들의 걱정이 많다”

고 말했다.

그래서 재외동포 청소년들,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겨레일 연수’는 한 회장뿐 아니라 재외동포 1세대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세계 7개국에 있는 겨레일운동 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넘쳐난다. 하지만 이들을 불러들일 재원이 마땅치 않다. 또 첫 시도인 만큼 큰 욕심을 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초청 인원은 50여명 정도. 이들은 겨레일 발양에 뜻을 둔 국내 청소년 50여명과 함께 1~2주 함께 생활하면서 조국을 느끼게 된다.

“조국의 장단점, 조국의 미래에 대

해 인식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회장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로 요약되는 우리의 얼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그 어떤 종교 못지않게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그가 지난해 12월 이웃 종교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과 로마 교황청 등을 방문한 후 더욱 강해졌다.

한 회장은 “이웃과 이웃이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목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도, 인간성도 저래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며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사는 바탕에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한미 FTA로 동맹 최절정 도달한다”

크롤리 의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서 밝혀

“아직 한미 동맹 관계는 최절정(peak?time)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의 조지프 크롤리(민주.뉴욕) 의원이 10일(현지시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올해 나이가 49세이지만 이미 7선을 기록하며 미 정가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 크롤리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매우 가까운데다 민주당내 대표적 차세대 그룹인 신민주동맹(New Democratic Coalition) 의장을 맡고 있어 외교부와 세입세출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노조 친화적인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지지한 인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후 한미 FTA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크롤리 의원은 “한미 FTA는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좋은 협정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 차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



서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형 FTA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5년내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수출구상(NEI)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제7위 교역국일 뿐 아니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인권, 노동 등의 분야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의 동시 비준 처리가 언급되고 있는데 대해 그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기본적

으로 한미 FTA를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미 FTA는 그 자체의 가치로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은 그는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미 의회 결의안 발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크롤리 의원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통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6자회담틀 외에도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한주〉

“경제인들의 활동영역 넓혀 나갈 터”

월드옥타 심양지회, 이성국 신임회장 취임



월드 옥타 심양지회 이성국 신임회장이 지난 8일 취임했다.

8일 심양 락산 주점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주심양 한국총영사관 신형근 총영사, 동북3성 한국인회 권유현 회장을 비롯한 외빈들과 80여명 월드 옥타 심양지회 가족들이 참석했다.

신형근 총영사, 권유현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이성국 신임회장이 길경갑 전임 회장으로부터 월드 옥타 총부에서 발급한 임명장을 수여받고 회기를 인계 받았다.

이성국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양한국인회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심양한국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하고, 내실을 더 다지기 위해 동포 경제인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여 회원 수를 늘리고, 타 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월드 옥타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법률, 공상, 세무 부문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회원사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차세대 무역스쿨을 지속적으로 개강해 차세대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이성국 신임회장은 길경갑 전임 회장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심양시 조선족기업가협회 박해천 신임회장에게 월드 옥타 심양지회 리사장 위촉장을, 심양시 조선족기업가협회 김태홍 비서장에게 월드 옥타 심양지회 차세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글로=이덕권 기자〉

“일본 관서지역 뉴커머들의 구심점 될 것”



박양기 관서한인회장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關西) 지역에는, 길게는 30년 전부터 일본에 건너와 살고 있는 한국인 뉴커머들이 약 4만~5만 명에 이른다.

뉴커머 조직으로는 10년 전 출범한 도쿄한인회가 유일했으며 지난 9월29일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한인회가 설립됐고, 치바(千葉)와 후쿠오카(福岡) 등 뉴커머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서한인회는 앞으로 유학생과 결혼 이주 한인 여성들이 많이 사는 교토에 지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최근 오사카 혼마치에 사무실을 마련한 관서한인회는 회장과 부회장 3명,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이사진 35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약

600명의 회원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지만,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도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일절 없고, 회원 가입 시에 한번 내는 입회비 2천엔과 이사 등 임원들이 매달 내는 최소 5천엔의 운영비가 예산의 전부이다.

앞으로 할 일은 우선 한인 네트워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학생들의 정착을 지원하면서 유학 후에도 일본에서 생활하려는 이들을 위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 미 홈페이지(www.kansaikorean.org)를 통해 관서한국인연합회의 회원사 및 관련 회사에서 일할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한인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사카=김희정특파원〉

KOICA 봉사단원 경험담 책으로 출간

우즈베크에 한의학 전하는 송영일 씨

“한국 말이 서툰 고려인들에게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의료한류’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구(舊)소련권으로 확산시켜보고 싶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 해외봉사단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돼 한·우즈베크 친선 한방병원에서 3

년간 진료봉사 활동을 하고 지난해 여름 귀국한 한의사 송영일(34) 교수(대전대 둔산한방병원)가 현지에서의 한방 진료와 의술 전수 경험을 담은 책 ‘오아시스에서 잠을 깨다’(KOICA 간행)를 최근 펴냈다.

KOICA는 단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많은 사람이 공유케 함으로써 국제협력 사업을 조명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

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책 집필을 권고해왔다. 이 책은 KOICA의 출판 지원으로 발간된 첫 사례다.

송 교수는 13일 “사막지역에서의 봉사가 다분히 낭만적이고 편할 줄로 생각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지인들의 삶을 통해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정신을 배웠다”며 “이를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김상익 특파원〉

마이크 잡는 권을

“미국에 한인사회 알릴 것”

연방정부 고위직 그만두고 공영TV 사회자로 새 삶



미국 TV 쇼 ‘서바이버’ 우승자로 유명한 권을(36)이 연방정부 고위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가 찾은 일은 미 공영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사회자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미국인들의 숨겨진 생활양식을 현장 위주로 흥미롭게 조명한 대형 특집 프로그램 ‘미국, 모습을 드러내다(America Revealed)’의 사회자로 권을을 선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제작 과정을 거쳐 올가을 방영될 예정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소비자 보호 담당 부국장으로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하던 권을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사직했다”고 발표했다. PBS의 발표가 있던 날 버지니아의 브런치 식당에서 권을을 만났다.

왜 연방정부 고위직을 떠나기로 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첫딸을 낳고 휴직을 했었다. 그러던 차에 PBS에서 제의가 왔다. 미국에서 한인 사회를 알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어떤 점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PBS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가 작동하는 여러 시스템을 현장을 통해 보여 주려 한다. 식품과 교통 통신망, 에너지와 제조업 생산 시스템 등이 주요 소재다. 교육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이 사회자로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LA=조규일 특파원〉



미리보는 KBS 전국

1만 관중 응집 속 화려하게

16일 중국 청도 국신실내체육관에서는 4시간에 걸친 노래자랑대회가 노래자랑 청도편. 이날 실황녹화된 이 행사는 설날인 2월3일 정오다. 본지는 현지취재를 통해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달한다.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기도 했다.



우수상은 받은 부부팀이 익살맞은 포즈로 노래하고 있다.



환호하는 관중석. 김동석 청도한인회장이 정면에 보인다.



초청가수 U-KISS가 공연하고 있다.

“송해 오빠한테 잘 보일려고 좀 섹시한 옷을 입었지요”

‘머니 머니해도 머니’란 곡을 재기 발랄하게 부른 영격플이 MC 송해 선생의 질문에 답한다.

‘날리리 맘보’가 울려 퍼지고, Miss A가 출연해 ‘배드 걸’도 선보인다.

청도 조선족 노인회에서 나온 황해도 황주 출신의 한 노인은 송해선생과 더불어 ‘꿈에 본 내 고향’을 구성진 가락으로 뽑았다.

이 행사를 준비한 김동극 청도한국인회장은 “청도에 있는 한국인과 조선족 동포들이 한마음이 되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관중들로 장내

가 입추의 여지 없이 된 것은 이를 준비한 한국인회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신실내체육관에는 관중 1만여명이 몰려 빈자리가 없었다.

체육관 밖에서는 암표를 거래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도는 물론 내몽고 등 중국 전역에서 몰린 예선 참가자들이 3일에 걸친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기량을 겨뤘다.

청도에 한인사회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의 행사라는 소개답게 초청 가수진도 화려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단이 청도를 찾아 청도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노래자랑도 참관했다.



노래자랑 '청도편'



이 펼쳐져... 설날 전국 방송

열렸다. KBS 전국
에 안방으로 방영된
[편집자 주]



한국초등학교 팀도 출연했다.



청도조선족노인팀은 상모돌리기와 함께 구성된 가락의 노래를 선보였다.



관중석 모습



시상식을 마친 후 최우수상 수상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초청가수 채연의 팬들이 야광볼빛으로 환호하고 있다.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현철, 효녀가수 현숙, 그리고 박상철 김용임 박현빈 채연 SG워너비 유키스 미스에이 등 많은 팀들이 출연해 관객석의 환성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한나라당 김무성의원과 조진형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장광근, 이병석 조원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단은 행사 전날인 15일 청도에 도착해 김동국 청도한인회장이 운영하는 극동보석(주) 청도공장을 견학한 후 이날 저녁 교민간담회를 갖고 청도에 진출한 교민들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김동국 회장은 이번 행사가 큰 성공으로 끝난 것은 한인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밝히고, 청도시도 국신체육관을 무료 제공하는 등 2억원에 상당하는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번 노래자랑대회로 단합된 열기를 모아 오늘 가을 청도한국주간을 더욱 큰 국제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가 열린 청도는 한국인 10만명에 조선족 동포 20만명이 살고 있는, 중국 최대의 한인타운에 속한다.

〈이중환 기자〉



한나라당 의원단은 김동국 청도한인회장이 경영하는 극동보석(주)를 참관했다. 사진은 원석창고를 방문한 의원들의 모습.



중국 조선족 과학인재들, 누가 있나

흑룡강신문 보도, 우수민족 '큰별' 들 많아

우리 조선족은 새 중국 설립이후 줄곧 여러 민족중에서 우수한 민족, 앞서가는 민족으로 정평 나왔다. 이와 결맞게 우리 조선족은 중국 과학발전사에 굽직한 한 획을 그어왔다.

20세기 초의 김현백(1904년~1990년)교수는 중국의 종양의학의 발전을 이끈 선두주자로서 '중국 종양의학의 대부' 로 불리며 중국 우주공간과학계의 '왕성(王星)' 으로 불리는 중국과학원 장춘 정밀기계 물리연구소 우병희 선임 연구원은 중국 신주 우주선에 장착한 광학장치 개발의 1인자이다.

북경화공대학의 김일광(78세, 길림성 도문)교수는 당대 제4통계력학 '군자론(群子?)' 의 창시자이며 할빈공업대학계산기학원의 홍병용교수는 '중국 로봇축구의 태두' 로 불린다.

선저우 우주선을 싣고 간 장정4호 을로켓의 총설계사 겸 총지휘자는 상해항천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인 리상영 교수이며 신주 4호에 탑재한 원격탐지장치 설계자는 중국공정원 첫 조선족 원사인 강경산 교수이다.

이렇듯 중국과학의 발전사에는

조선족 큰별들이 있다. 그들이 노 일대 과학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젊은 박사대오도 만만치 않다.

의학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민족의 영재들

의학분야에서 조선족의 실력은 종래로 앞장섰으며 중국 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제1군의대학 주강병원 성형외과 주임인 류대렬(55세, 박사 지도교수 흑룡강성 연수현 출신) 박사는 성형계에서 '얼굴성형의 대가' 로 불리고 있다. 뛰어난 성형외과로 중국 얼굴성형계의 많은 공백을 메운 공로자인 류대렬 박사는 CCTV10 채널의 '인물탐방' 프로에 특별 소개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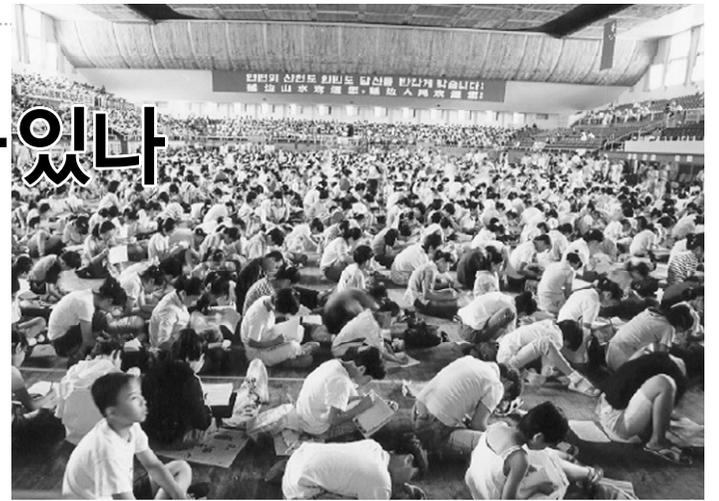
중국중의과학원 수석연구원이며 국무원 특별수당금을 받고있는 중국중의연구원 광안문병원(广安门医院)의 박병규(길림성 매하구시) 교수는 폐암에 대한 연구가 깊다. 박 교수가 발명한 폐암말기 전용약인 '익폐청화과립(益肺?化?粒)' 은 현재 폐암말기환자들이 주요로 복용하는 약이다.

그리고 할빈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보통외과 5병실의 주임인 박대훈 의학박사(50세, 주임의사, 교수, 흑룡강성 농강현 출신)는 직장분야에서 암환자들로부터 '희망의 칼' 로 불리고 있으며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장이식 수술에 성공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내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분야도 다양하며 성과도 획기적

조선족 가운데는 과학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분야도 다양하며 세계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북경올림픽 '새둥지' 건축에 핵심점 기술을 제공해 인민대회당에서 호금도주석으로부터 '2009년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을 받은 길림대학의 리명철(길림성 도문) 교수, 20여년간 기계연구사업에 혼신을 몰부은 리 교수의 이 기술은 미국의 선진기술을 초월한 세계 최정상 기술로 평가 되고있다. 리 교수의 다점무금형곡면성형핵심기술은 고속렬차, 선박공정, 의학공정, 전자,



화학공업 등 많은 영역에 응용되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미국에서 피부병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최창익 (45세, 흑룡강성 화천현 성화조선족향 출신)박사는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외배열발육부전병 관련 다중유전자변이 동물모형을 배양해냈으며 또한 외배열발육부전병 발병에 참여하는 4개의 중요한 유전자를 발견, 아울러 이들의 분자수준의 기능을 알아내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앞선 인물이다.

그런가하면 연변대학 동물배태공정연구소 윤희준(45세, 연변출신)교수는 2002년 세계 최초로 화학보조탈핵방법으로 돼지를 복제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외에 국제건축계의 중시를 받는 조선족도 있다. 할빈공업대학 토목학원 교수로 있는 최창우 박사 (47세, 연변 통정시 출신)는 건축계에 '개진진화론방법' 과 '고도조

정법' 이라는 새로운 리론을 내놓았고 이를 실제 공정설계에 보급시켰는데 국제건축계의 중시를 받고 있다.

할빈조선족교수친목회(회장 백기성, 할빈공업대학)에 따르면 할빈시에 소재한 대학에만 400여명의 조선족교수가 있다. 조선족교수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 받고있다고 할빈조선족교수친목회의 리성덕 비서장이 밝혔다.

국가급 자연과학기금을 받는 조선족 교수들이 많은가하면 대학의 중요 부문을 책임진 교수들도 많다. 동북림업대학 원림학원의 류삼규 부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이 주최하는 '동북유전 염분?알칼리토양 복원 및 재건' 프로젝트가 국가교육부 중점실험실로 지정 받았으며 길림공상학원의 신봉철(55세)서기는 국내 고등학교(연변대학 외)의 유일한 조선족 제일 책임자이기도 하다. <흑룡강신문=김선화기자>

“대행사 피하고 기술교육지원단에 의뢰하라”

‘재외동포 기술교육 신청방법’ …지정학원 등록하기

재외동포기술교육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각종 서류허가 대행업체(행정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중국현지 여행사나 대행업체가 잘못된 정보로 현혹하거나 과도한 대행료를 요구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문제가 되면서 직접 지원단을 찾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직접 다니고 싶은 학원을 정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고 국내에서 취업하기까지의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 한국 입국 후 기술교육 참여 절차

1. 지원단을 방문한다.
2. 희망하는 교육과정과 기술교육기관(직업전문학교, 학원)을 선택한다.
3. 지원단에서 D-4체류자격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를 받는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다.
5. 선택한 기술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전 공지된 개강일부터 수강을 시작한다.

※준비물-사전신청, 여권, 중국신분증, 수강료 3개월분

지원단 방문 및 접수절차

●교육기관 선택→기술교육 수강지원 및 서약서 작성→지원서 접수→체류자격변경 추천서 발급→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 발급→D-4체류자격 변경 후, 수강료와 생활비마련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구하기→고용확인서 지원단에 제출→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추천서 발급→출입국 신고

※지원단 위치-지하철 동묘앞역 1호선·6호선 7번 출구, 금호팔레스빌딩 12층

체류자격변경 신청 절차

지원단에서 발급받은 추천서와 수강료 영수증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체류자격을 변경한다. 이때 수업인자비용이 필요하다. 체류자격변경은 6만원, 자격변경 수수료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이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추가비용이 없다.

●신청서 양식 작성, 접수→체류자격변경완료→외국인등록증 수령

※본인이 직접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시 필요한 수수료로 사전에 파악하여 대행접수 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택한 학교/학원가기

개강안내는 개강 전 각 학교/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전화로 입학날짜를 통보해 준다. 교육기간 중 5일 또는 16교시 연속 무단결석 및 연락 두절일 경우, 교육규정에 따라 제적 및 강제출국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2차분 수강료는 학원에서 고지서를 받은 후 신한은행에서 납부한다.

H-2방문취업비자 취득

학원수강 3개월 후, 2급 이상 국가기술 자격 취득 또는 9개월 수료 후 H-2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법무부가 허용한 36개 직종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F-4재외동포비자 취득

H-2체류자격 변경 후 수강한 과정과 해당 생산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해당 생산직종에 2년 연속 근로하고 법무부 정정의 절차에 따라 조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지원단 문의: 02-766-3900

뉴질랜드의 최고령 할머니 운전자

뉴질랜드에는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15만 명이 넘고, 80세 이상 운전자는 5만 5천 여명, 90세 이상 운전자는 4천 5백 여명, 100살 이상 운전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숫자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439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비율은 아주 높은 것이며 100명 중 3명 이상이 75세 이상, 1명 이상이 80세 이상 운전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고령 운전자는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80세부터는 2년 마다 한 번씩 주행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다. 75세와 80세 때 한 번,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2년 마다 한 번씩 약물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약물 검사는 95% 정도가 합격한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고 땅은 넓어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이는 움직이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 집에 2대, 3대씩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이다.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걸음은 잘못 걸어도 차는 잘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중 아주 특별하게도 105살 할머니가 뉴질랜드에서는 최고령 운전자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의 '타라나키' 라고 하는 지방에 105살 된 플로라 벤튼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지난 달 105살 생일을 지냈다. 벤튼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은 삼촌인 플로라 데이비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삼촌은 107살 까지 살았다고 전했고 할머니의 집안은 전통적인 장수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벤튼 할머니는 105살 고령인데도 아주 곱고 아직도 손에는 뜨개질 감을 들고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벤튼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농촌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13살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를 짜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 해서 노는 시간이 없이 언제나 바쁘게 생활했다고 한다.

15살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갈아 끼울 정도로 정렬적인 소녀였고 나중에는 음악에 심취하기도 했다. 벤튼 할머니는 나중에 오페라 가수로 생활하기도 할 만큼 음악이 할머니의 생활이 됐다.

벤튼 할머니는 지금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싫다고 말하면서 루마니아의 고아들을 위해 뜨개질 이불을 만들고 있다. 벤튼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은 없다고 말하고 수명은 타고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공기와 더불어 열심히 생활하는 할머니의 생활태도가 할머니의 장수비결인 것 같다.

<오클랜드=이혜원 특파원>

新年快樂！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교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KBS 전국노래자랑 청도편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설날인 2월3일 정오에 전세계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우리 한인 동포들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기쁨과 웃음 가득한 한해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청도한국인회 김동극회장 및 임직원 일동 -



청도한국인회 김동극 회장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11일 착공식

비엔나 도나우 공원안 '그림같은 집'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기공식이 11일 빈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윤조 주오한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Ing. Rainer Weisgram 비엔나 시정부 이사, Dr. Nicer 한오 친선협회 회장, Werner Amon 한오의원친선협회 회장, 박종범 한인연합회회장, 전미자 한인문화회관 설립위원회위원장, 유소방 한인문화회관 설립위

원회 사무총장과 손광웅 상임이사, 김종기 명예회장 등 오스트리아 한인 동포와 다문화 가족, 오스트리아 현지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공식은 비엔나 시 22구에 소재한 DONAU 공원 안 Irisee 에 위치한 회관 건물 부지에서 개최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한인 동포 스스로 비엔나에 한인문화회관을 설립하겠다는 각오로 2008년 6월 17

일 회관 설립위원회를 구성, 꾸준히 모금활동을 해 왔다. 그 결과 2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현재 930,000유로(원화로 약 15억원)을 자체 모금했고, 재외동포재단에서 150,000불(약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비엔나 시정부로부터 도나우 공원 안의 시청 소유 건물을 50년간의 장기 조차받는 계약서를 구급 12월 29일 체결해 이번에 기



공식을 거행하게 됐다는 것. 박종범 오스트리아 한인회장은 "이번에 건립되는 한인문화회관은 중부 유럽의 심장부인 비엔나에 설립됨으로서, 한국문화의 대 유럽진

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한인 동포들의 교류의 장과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철환 특파원〉

크로아티아, 주한 대사관 개설 적극 추진

박희태 국회의장, 요시보비치 대통령에 요청

크로아티아가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14일(한국시각) 이보 요시포비치 대통령을 비롯해 야드란카 코소르 총리, 루카 베비치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 설치를 요청,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크로아티아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크로아티아는 지금까지 주일 대사관이 주한 대사관 업무를 겸임해왔다.

이와 함께 한-크로아티아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즈음해 문화와 학술,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소르 총리는 박 의장과 면담

에서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을 개설키로 결정했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곧바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시포비치 대통령은 관광 교류 확대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다.

특히 크로아티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리예카 항만 현대화 사업과 철도망 구축 등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면담에서 양국간 교역량이 1억5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고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실현되면 양국간 교역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박 의장과 베비치 의장은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양국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베비치 의장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선택 한·크로아티아 의원친선협회장(자유선진당)과 유기준 주호영 최구식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승호 기자〉

재불예술인총연합, 파리 17번가 '사계절'에서 총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재불예술인총연합(FACF)이 15일 파리 17번가 '사계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불예술인총연합은 재불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분야별 정보교류 확대, 대외 소통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단체.

지난해 10월, 파리 14구의 복합문화공간 에스빠스 5 에뚜왈(대표 정락석)에서 원로작가 권순철, 고송화 화백을 비롯해 회화, 음악, 문학, 공연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개인예술가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당시 3개월간 임시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총연합 준비위원

로 활동했던 설치작가 하차연 씨를 임시회장으로 단독 추천했던 것. 임원진으로는 작가 겸 문학번역가 임영희 씨와 아조오페라의 김기현 대표 등이 추천 및 수락을 거쳐 참여했다.

지난해 총연합의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하차연(50) 작가는 지난 20여 년 간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설치 및 비디오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파리=윤순철 특파원〉



'울지마 톤즈' 관객 30만명 돌파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관객 30만명을 돌파했다고 KBS가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방송된 KBS 1TV 'KBS스페셜·수단의 슈바이처'를 영화로 재편집한 '울지마 톤즈'는 2001년부터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봉사활동을 펴다 지난해 1월 14일 대장암으로 별세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뤘다.

지난해 9월 9일 전국 13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관객 10만명을 돌파했고 11월 중순 관객 17만 명을 돌파해 '회복'(16만 명)을 제치고

국내 종교 다큐멘터리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울지마 톤즈'는 '2010 '올해의 좋은 영상물', 제1회 'KBS 감동대상', 제20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KBS 1TV는 이태석 신부의 선종 1주기를 맞아 14일 밤 11시40분 '울지마 톤즈'를 방송했다.

'울지마 톤즈'를 연출한 구수환 PD는 15일 오후 6시 방송되는 KBS 2TV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해 가톨릭 매스컴 대상 상금 전액을 톤즈 병원에 기탁했다.

현대차, 이집트서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한국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해피부브 청년봉사단이 이집트를 방문, 카이로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14일 현대차아프리카지역본부(본부장 이장호 이사)에 따르면 15일부터 현대차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청년 봉사단원은 오는 26일까지 이집트에 체류하면서 현지 보육원 등을 찾아가 폐인 트릴 등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주

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해피부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6기 500명을 선발, 이집트와 중국, 인도, 브라질, 필리핀 등 저개발지역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이집트 내 승용차 판매 분야에서 27.5%(기아차 포함 시 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온라인게임 '그랜드체이스' 유럽 진출

KOG(대표 이종원)는 온라인 액션대전기 게임 '그랜드체이스'가 유럽 게임시장에 진출한다.

KOG는 최근 'SG 인터랙티브'와 그랜드체이스의 퍼블리싱 계약을 하고 올해부터 유럽 지역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SG 인터랙티브는 북미지역에 그랜드체이스를 서비스 중인 유통회사로 그랜드체이스 외에 팡야, 트릭스터 등 3개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랜드체이스는 온라인 액션 장르를 개척한 게임으로 브라질에서 4년 연속 최고 온라인게임으로 인기몰이 하는 등 8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랜드체이스가 지닌 뛰어난 타격감, 전 세계에 통용되는 재미, 다양한 개성을 가진 40여개의 캐릭터 등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에 일시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선거를 통해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외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져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故이태석 신부의 '나눔 정신'

이재현 환경부 정책관 '수단어린이장학회' 활동이여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故) 이태석 신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인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은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신부의 수단 활동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으로 장학회를 이끄는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정책통'으로 유명한 이 정책관은 지난 2000~2003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요원으로 가족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에서 생활하면서 이 신부를 처음 만났다. 이 정책관은 "나이로비에서 가톨릭 한인회장을 맡았는데 물건을 사러 나이로비에 들른 이태석 신

부를 자주 만났다"며 "기타 연주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점이 비슷해 마음이 서로 잘 맞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신부에게서 남(南)수단인들의 참상을 전해들은 이 정책관은 고인의 요청에 가족과 함께 2003년 3월 운명적인 톤즈 방문을 하게 된다. 그는 "원래 2년 임기로 2002년에 귀국해야 했지만 신부님은 우리는 바로 못 헤어진다. 내가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며 "이 신부의 기도가 통했는지 정말 임기가 1년 연장돼 톤즈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이 눈으로 확인한 남수단의 모습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처참했다. 그는 20년 이상의 내전 여파로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남수단 주민의 처참한 생활상과 이 신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 10일간 톤즈에 머물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라는 책을 펴냈다. 귀국 후 이 정책관은 수단 이태석 신부님'이란 카페를 인터넷에 만들고 수단어린이장학회를 설립해 톤즈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신부가 휴가차 잠시 귀국할 때마다 수단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함께 열어 후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주 토요일 네 번째로 개최한 음악회가 슬프게도 이 신부님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됐다"며 "1천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고, 이 신부님이 직접 만든 노래를 통해 참석자들은 신부님, 톤즈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14일로 선종 1주기를 맞는 이 신부의 육체는 비록 세상에 없지만 사랑의 정신만은 그대로 남아 톤즈에 전해지고 있다. <이승호 기자>

하버드법대 석지영 교수

'자랑스런 한인상' 수상



끝없는 자기채찍질로 30대 성공신화 이뤄내

지난해 11월 하버드 법대에서 여성으로는 첫 아시아계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37.미국명 지니석) 씨(사진)가 13일 미주 한인인사를 맞아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자랑스러운 한인상'에는 석 교수와 함께 서남표(7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박윤식(71)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석 교수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법대의 종신교수직에 오른 성공 신화와 특히 자신을 강하게 채찍

질해온 그의 성장과정이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많은 울림을 던지고 있다. "어릴 적 갑자기 바뀐 나라, 문화와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상황을 헤쳐가는 힘을 키워주었어요" 지난 1979년 6살 때 뉴욕 퀸즈로 부모를 따라 이민한 석 교수는 어릴 적 완전히 새롭고 낯선 환경에 던져지고 적응했던 경험이 삶을 발전시켜온 큰 원동력이었다고 회고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딴 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석 교수는 범죄, 가족법에 관한 저서와 논문으로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로 발탁됐다. 앞으로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선생이 되고 싶다"는 석 교수는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학생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조규일 특파원>

코리안 드림 좇는 中 동포들 감동

MBC 스타 오디션-위대한 탄생 동포 등용문 기회 활짝

MBC '스타 오디션·위대한 탄생' (이하 '위대한 탄생')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 소수 민족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오디션 편이 방송된 7일 '위대한 탄생'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에 가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좇는 참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위대한 탄생'은 중국 청도에서 진행된 오디션이 방송됐다. 참가자 중 22세 김휘 씨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고 '방송에 나가서 아버지가 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김휘 씨는 2AM의 전할받지 않는

너에게와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불렀다. 심사위원들은 "반 가성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있다. 인위적 바이브레이션인데 잘못된 발생"이라면서도 "다양하게 노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 가서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격점을 줬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두 번 받으셨는데 내가 약도 못사드렸다. 그걸 생각하면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참가한 25세 한호 씨는 휘성의 인썸니야를 불렀다. 연길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제일 잘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한호 씨는 "연습을 많이 한 게 느껴지지만 듣는 사람 마음까지 그 음악에 흡수하도록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시 합격

했다. 22세 백청강 씨는 "집안 사정으로 9세 때부터 혼자 살아왔다.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겠다"며 참여했다. 김경호의 사랑 그 시린 아픔으로와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부른 백청강 씨에게 이은미는 "가장 쉽게 노래하는 사람 중 한명을 만났다"고 극찬을 하면서도 "노래하는 방법이 틀렸다. 한국말은 코 끝에 소리를 모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좋은 음색, 좋은 악기에 좋은 창법까지 얻으면 좋다"며 합격시켰다. 김태원은 백청강 씨의 한쪽 눈을 가린 헤어스타일에 대해 "1980년대까지 스타일인데 그 시대는 끝났다"며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도창수 기자>

미혼절반, '전쟁위험 높아지면 결혼 서둔다'

전국 미혼남녀 556명 대상 설문조사

미혼들은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아지면 결혼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에 감 필링유와 공동으로 구립 30일~5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전쟁발발 위험이 높아질 경우의 결혼시기 조정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녀 똑 같이 '서두른다' (남 57.9%, 여 42.8%)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다음으로 '영향 없다' (남 36.7%, 여

38.1%) '미룬다' (남 5.4%, 여 19.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질문에서 '결혼을 서두른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응답자의 63.9%가 '어려울수록 배우자가 필요하여'로 답했고, 여성은 73.6%가 '결혼을 꼭 해보고 싶어서'로 답해 각각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결혼을 꼭 해보고 싶어서' (31.7%), 여성은 '어려울수록 배우자가 필요하여' (21.2%)가 뒤따랐고, 마지막 3위는 '전쟁이 나도 별 피해 없을테니' (남 4.4%, 여 5.2%)로 답했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전쟁이 발발하면 남성은 직접 전투에 투입될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라며 "한편 여성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그 꿈을 이뤄보고 싶어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기 1번 질문에서 '결혼을 미룬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남녀 모두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남 72.9%, 여 74.4%)를 단연 높게 꼽았다. <안초윤 기자>

"한식 세계화에 도움 줄 것이다"

美 맨하탄 한식당 운영, 국민 89% 긍정적

정부가 맨하탄에 추진 중인 플래그십 한식당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지난해 11월

18~19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플래그십 한식당이 한식세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국회에서 맨하탄 플래그십 한식당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후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또 이번 조사결과 한국 국민들의 한식 세계화에 대한 인지도는 52.1%로 전년의 39.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년과 비슷한 92.1%의 응답자가 한식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실현가능하다는 답이

80.2%로 전년의 68.8% 대비 크게 늘어나는 등 한식 세계화에 대한 공감대와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한식 세계화 진행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48.0%)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37.1%)보다 다소 우세했다. <이재경 기자>

“IKEN 대회, LA에서 내달 18일부터 열려”



서울 찾은 민병수 세계한인교육자협회장

“다음달 18일부터 LA에서 2박3일간 열립니다”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난 민병수 세계한인교육자협회(IKEN) 공동회장이 이렇게 소개한다.

IKEN은 미국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KLPD)을 지원하는 것을 활동목표의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비영리기구.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영어 외에서 다른 언어로 수업을 하도록 해서 두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바이링구얼 인재를 만들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일본과 중국은 일찍 시작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 언어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너이상 늦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협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지요”

지난해 IKEN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교재를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 가져간 교재로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 현지에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든 것이다.

“지난 9월학기부터 이 교재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북으로 만들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맘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민회장은 미국에서 개업 36년이 된 변호사다. 형사사건이 전공이다. 그는 로스쿨에 다니기 전에 미국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때문인지 모른다.

“아버지가 LA 초대 총영사를 하셨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후 첫 공관으로 LA총영사관이 문을 열었는데, 그때 부임하셨지요. 저는 15살의 나이로 따라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지금까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민회장은 한국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가 주는 첫 해외부문 상을 이태전에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는 이 상을 선정치 않았는데, LA에서 첫 한인여성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태미 정이 올해 수상자로 되면서,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랴부랴 왔다고 했다. 이 상은 먼저 받은 사람이 수상자를 소개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 시상식장에서 태미 정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틀밖에 서울에 머물지 못합니다. 돌아가서 세계한인교육자협회 대회를 준비해야지요. 해외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회장의 요청이다.

〈이종환 기자〉

지난해 중국방문 한국인수 240만명

2010년 한국인출경인원수가 연 1173.7만 명에 달했고 그중 중국을 목적지로 한 출국인원이 첫자리를 차지해 284만 명에 달했다고 조글로가 한국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로 보면 지난해 한국출입국자수가 총 4298만 8천 명에 달해 처음 4000만명의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 그중 출국에서 중국을 목적지로 한 출국인원이 첫자리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 미국과 태국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중 중국대륙이 연 172만명으로 300만명에 달하는 일본 뒤를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법무부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2~3년내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랜드세일 & 코리아패스 서비스 실시

문화부, 대한민국 관광 내외국인 두 마리 토끼잡기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한국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간 열린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국내 관광을 할 때 한 장의 카드로 교통·관광·숙박·쇼핑·공연예술 등 관광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통합 이용권(이하 코리아 패스(Korea Pass))서비스가 확대된다.

‘2011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간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 개최되는 ‘최초·최대 한국 쇼핑 관광 축제’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쇼핑, 외식, 숙박, 문화 공연 분야와 편의 시설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

인들에게 쇼핑 편의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한국을 홍콩에 버금가는 쇼핑 관광 목적지로 거듭나게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를 늘리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갤러리,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 등의 주요 백화점 및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몰, 그리고 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동화, 워커히, 신라, 파라다이스, 롯데 면세점 등 총 1만 4천여 개 업소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함께 오프닝 이벤트와 공항 웰컴 프로모션 등 각종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첫날인 1월 10일부터 7일간 ‘2011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념 공항 특별 이벤

트’가 진행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굿기만 하면 누구나 호텔 숙박권과 공연 초대권, 각종 기념품 등이 당첨되는 즉석 복권을 나눠 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1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국이 쇼핑 관광 목적지가 되어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쇼핑 관광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2011년은 인바운드 관광과 함께 내수 관광 촉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국내 예술 영재들이 펼치는

‘PIANO PHOTOGRAPHY’ 개최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올림푸스홀’에서 13일 국내 음악·무용 영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PIANO PHOTOGRAPHY’라는 타이틀로 클래식과 무용, 그리고 영상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클래식과 현대 무용, 그리고 영상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기존의 클래식 공연과는 차별화된 컨셉트가 눈길을 끈다.

우선 올림푸스홀 옆에 위치한 ‘갤러리 PEN’에서 무용과 음악, 영상이 어우러진 짧은 공연이 시작된다. 타이틀은 ‘무용수가 데려다 주는 음악회 가는 길’. 말 그대로 ‘PIANO PHOTOGRAPHY’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 갈 스무살 남짓의 음악 및 무용 영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메인 피아노 공연의 두 주인공 김준희와 정한빈은 한국 음악을 이끌 영재들로 손꼽히는 청년들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과정 4학년 재학 중인 김준희는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3위, 프랑스 퐁티보 국제콩쿠르 최연소 2위 등 ‘최연소’라는 타이틀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김선욱, 김태형과의 앙상블 공연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도창수 기자〉

헨버트가 쓴 우리 옛날이야기 번역 출간

한국 최초의 영어교사였던 호머 헨버트가 우리의 전통 이야기를 모아 쓴 책이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최근 출간된 ‘마법사 엄지’ (코러스 펄스)는 1925년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헨버트의 ‘Omjee the Wizard’를 한국어로 번역해 영문 원전과 함께 실은 책이다.

188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인 육영공원의 영어 교사로 부임한 헨버트는 우리나

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들은 우리의 옛이야기들 중 12편을 골라 쉽고 간결한 영어를 사용해 ‘Omjee the Wizard’를 엮었다.

이 책은 장님 점쟁이면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인물 ‘엄지(Omjee)’를 등장시켜 ‘석달’이라는 소년에게 흥미진진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엄지와 석달의 만남을 소개한

‘석달이와 마법사 엄지’를 비롯해 엄지가 석달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용왕의 딸’, ‘토끼와 진주들’, ‘친절한 도깨비들’ 등 12편이 실려 있다.

주독일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장과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장을 지낸 이현표 씨가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안초운 기자〉





중국 하얼빈 국제 빙설축제 5일 개막

빙설대세계 · 태양도눈조각예술박람회 등 풍성

캐나다 퀘벡 광환축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노르웨이 오슬로 눈꽃축제와 함께 세계 4대 빙설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제27회 중국 하얼빈국제빙설축제가 5일 오후 하얼빈에서 성대히 개막됐다. 아울러 제12회 하얼빈빙설대세계가 5일 저녁 개원됐다.

국가관광국, 흑룡강성인민정부, 하얼빈 시인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중국 하얼빈국제빙설축제는 '빙설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격정의 도시를 만들자'를 주제로 혁신성, 참여성, 국제성, 시장화운영 등 여러 방면에서 돌파를 가져왔다.

하얼빈빙설대세계, 태양도눈조각예술박람회와 빙등유원회 3가지 주요내용으로 전시된 전통적인 빙설축제와 달리 이번 빙설축제는 빙설제국제합작을 강화하여 국제에 영향력을 넓히는 한편 디스니 국제브랜드와 합작하여 빙설 이역 풍경 만들었다. 또 하얼빈 시내 주요거리에는 빙설조각품들로 도시문화와 풍정을 한껏 과시했다.

‘세계 최대 빙설디스니락원’으로 유명한 하얼빈빙설대세계는 올해 부지면적이 60만평방미터, 얼음사용량이 18만립방미터로 빙설예술작품 2000여건을 전시하여 빙설예술의 기관을 선보였다.

빙설관광, 빙설경제무역, 빙설예술, 빙설문화, 빙설스포츠 등 5개

부분으로 나뉘는 이번 빙설축제는 제12회 빙설대세계, 제23회 태양도눈조각예술박람회, 제37회 빙등유원회, 제13회 흑룡강국제스키축제, 제27회 빙설축제빙상합동결혼식, 제27회 중국하얼빈국제빙설제경제무역상담회, 국제눈조각경기, 눈판모터씨클, 빙압타기, 빙설운전, 빙상음악회와 영화전시회 등 100여개 계열행사를 진행하여 빙설도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한층 높일 전망이다.

중국 하얼빈국제빙설축제는 1985년에 창설된 이래 독특한 자연조건과 빙설자원을 활용하여 하얼빈시의 하나의 명함장으로 됐다. <김광석 기자>

연길, 역사유적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키로

장동, 도풍, 평봉산고대장성유적 등을 관광풍경구로

연변조건에 따르면 올해 연길시에서는 장동유적, 도풍 유적, 평봉산고대장성유적과 삼도만진 화산봉유적을 관광풍경구로 개발하게 된다.

장동유적과 도풍유적은 연길시 소영진 장동촌과 동풍촌에 있는 두 개의 원시부락유적이다. 평봉산고대장성은 연길시 조양천진 팔도구의 쌍봉산과 평봉산 사이에 있는 고대장성과 봉화대유적이 있다. 연길

고대장성은 서쪽 화룡시 토산향 동산촌에서 시작해 화룡시 서성, 룡문, 룡정시 세린하, 조원, 동불사, 연길시의 팔도, 연집, 도문시의 장안진으로 이어지다가 연길시와 15킬로미터 떨어진 마반산 부근에서 소실된다.

고대장성은 주로 흙으로 쌓았지만 돌로 쌓은 곳도 있는데 전체 길이는 150킬로미터, 발견된 봉화대는 17

개에 달한다. 보존이 제일 잘된 구간은 로투구진 관선촌에 있는데 아직 높이가 3미터에 달하는 장성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대장성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기에 일부 사람들은 이 장성이 발해시대에 축조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장성이 금나라 혹은 고구려시기에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 한국 K-리그서 새 축구인생 연다

2010 갑급리그 시즌이 결속된 뒤 이적설에 휘말리다 2011 시즌 연변팀에 남기로 했던 박성이 연변팀을 떠나 한국 K-리그에서 새로운 축구인생을 열어가게 될 전망이다.

연변구단 정현철 총경리는 광주FC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건너가 최만희 감독

을 만나 광주FC 구단측에 박성의 프로필을 제공했다.

광주FC측도 중국올림픽팀 주력 선수인 박성 선수에 관심을 보였으며 임대계약 형식으로 박성 선수를 팀에 영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27일, 중국 운남 홍타이 훈련기지에 캠프를 차리게 되는 광주FC는 2월 5일부터는 상해로 이

동해 15일까지 전지훈련을 이어가게 된다.

이 기간 연변구단은 협상책임자를 파견해 박성 선수를 대동, 테스트를 받게 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대우문제, 출전 껌 수와 수당 등 세부사항 합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사항 합의와 테스트를 통과해 임대계약에 최종 합의하게 되면 박성 선수는 중국 조선족출신 축구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K-리그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중국 길림성 제8기 '감동길림 10대 인물평의 활동'에서 연길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대대장 김희씨가 '감동길림' 10대 인물에 선정됐다. 김희씨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입후보자이다.

정 받고 있다. 또한 맨 손으로 마약밀매자를 체포하기도 했으며, 동료들과 함께 2300여대의 도박기를 사출, 몰수해 도박기가 연길에서 철저히 종적을 감추게 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연길시

'감동길림' 10대 인물에 김희씨 선정

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연길시 공안국 형사기술 경찰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부패된 시신을 업고 산에서 내려왔고, 연속 18개 주야 잠복해 있으면서 강탈혐의자를 검거하는 등 성실성을 인

중소학교 앞에 이동식 교통 신호등을 설치해 학생들의 등하교시의 교통안전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온 것이 이번 10대인물 선정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최미란 기자>

연변 GDP 전년대비 17.2% 성장

리룡희 연변주장, '정부보고' 서 밝혀



지난해 연변 자치주 GDP가 전년대비 17.2% 증가했다고 리룡희 연변주장이 밝혔다. 리주장은 11일 열린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정부사업보고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회는 이날 오전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대회 집행주석이며 주석단 상무주석인 김석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연변주 13기 인대 327명 대표중 294명

이 참석했다. 연변주정부 리룡희 주장은 '정부사업보고'에서 2010년 사업 경과를 소개하면서 지난 1년간 연변주 고정자산투자는 738억 위안으로 30% 증가했으며, 수출입총액은 15억 2000만 달러로 12.7% 늘었고, 도시주민 1인당 수입도 1만 4780위안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변주는 지난 5년간 연 평균 17%의 GDP증가세를 보여왔다.

연변 두만강빙설절 하루 관광객 2만명

빙상자전거 스케이트 등 놀이 많아

'연변의 겨울' 중국두만강빙설절 관광에 하루 2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만강관광개발유한회사 리홍군 부총경리에 따르면 두만강빙설절이 지난 12월 30일에 개막된 이래 도문시 두만강광장은 매일 2만명의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으며, 도문시민이 60%, 연변주 외 기타 관광객이 40%를 차지한다는 것. 도문시 두만강광장을 찾는 관광

객들은 얼음미끄럼대, 빙상자전거, 얼음미궁(?迷?), 빙상모터씨클, 스케이트 등을 즐길 뿐아니라 중국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관을 참관하고 '두만강의 노래' 가무공연도 관람한다.

이번 빙설절은 연길시광국제려행사, 백산국제려행사, 해외국제려행사, 금교려행사 돈화시의 금정려행사 등이 공동 진행하고 있다.

월드시평

정상에 우뚝서서 우주를 바라보자

탁계석 <논설주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G20 정상회의도 훌륭하게 치른 만큼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경제 순위가 10위권, 수출 실적 7위권,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도 크게 늘었다. 각종 지표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이 동남아의 허리 우드가 되었다 하고 한류 전문가들은 아시아를 벗어나 고급한류로 유럽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단군 이래 이런 때가 있었을까 싶다. 이처럼 국운 상승을 타고 세계사에 새 문명 창조를 한다면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은가.

가까운 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어 부르는 현상마저 일고 있다니 격세지감이다. 그 뿐인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각종 스포츠에서의 금 매달 잔치. 골프, 아이스하키, 양궁, 축구, 야구, 얼마 전 아시아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하지 않았는가.

정상에 우뚝 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우주다. 또 하나, 정상에선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민이 갖추어야 할 정신가치와 자세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 각자는, 해외동포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홍보대사요 파워 코리아를 만드는 실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지만 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은 빨리 빨리 해낼 수 있다.

특히 해외교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한인사회 네트워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신감과 자긍심은 이뿐이 아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한류음식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지 않은가. 관광객도 크게 늘고 한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템플스테이까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낯 설은 이국땅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살아온 분들, 한국음식을 전파하고 코리아의 맛을 위해 눈물로 꽃을 피워 온 분들의 결실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

가라고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동포끼리 싸우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려야 한다. 강물이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르듯 한강은 오늘도 교향곡처럼 힘차게 흐른다. 젊은이들은恨의 아리랑을 극복해 춤을 추고 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그 그리움을 행복으로 바꾸자. 멀리 있어도 서로 아름다운 꿈이 되자.

그렇다. 세계인들에게 달밤의 강강술래를 팔자.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지구촌 相生을 알리자. 우리의 강점인 따뜻한 정서의 휴머니티로, 품앗이하는 두레의 정신으로, 평화의 꽃을 피우자. 경제성장 국가에서 슬로우시티(slowcity) 元祖 나라답게 한국의 열과 정신문화를 구현해야 할 때다. 정상에 우뚝서서 우주를 바라보자. 다시 뛰고, 다시 도약해야 한다. 분명, 우리의 미래가 밝다.

특별기고

해외교포의 마음과 향수 달래 주는 우리 음악

박인석 <메시아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음악과 나의 인연은 기묘하다. 악기하나만져 보지 못한 나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40여년전 복잡한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황당하게도 '음악'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받은 것. 뒷골목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나의 운명을 일순간 바꿔 놓은 것이다. 이때부터 음악 이론과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나중에서 안 것이지만 이 분은 미국의 어느 주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발탁되었다고 들었다.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음악을 전공하려 했지만 집안에선 때마침 당시 경제개발 정책으로 상승세를 타던 '공대'를 권유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해가며 주말이면 부산에 내려와 여러 음악단체들과 교분을 쌓아가며 학업도 열심히 해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일러에 관한 특허도 30여개 획득해 에너지절약형 보일러인 콘텐싱 보일러의 국내최초 개발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은 뒷전이고 오히려 '음악'이 내 삶의 모든 것이요 구심점이 되버렸다.

사실 어린 시절 미술공부도 하여 입상한 적도 있고, 유단자로서 주먹세계와 통하여 담력과 용기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면 공대과목과 예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작과 정교한 설계 기술력이 하나로 묶여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다. 그 결과 1,000여회 이상의 음악회를 지휘하고 500여편 이상의 곡들을 직접 편곡과 작곡을 하는 이력도 쌓게 됐다.

10여년 전 80여명으로 구성된 메시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한국인의 열이 녹아든 정서와 우리가락에 깊이 빠져 들었다. 세계에 오케스트라 없는 곳이 없지만 한국음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미친 사람처럼 우리 작곡가들의 작품을 고르고 분석해 가며 연주했다.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브람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리랑은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 지난해인가 뉴욕 필 하모닉이 북한을 방문하여 거쉬윈 '파리의 미국인', 드보르작 '신세계교향곡',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 등을 연주한 적

이 있다. 이때 북한 청중들은 긴장감 속에서 무표정했지만 아리랑을 앵콜 곡으로 연주하자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었다고 한다.

지휘를 맡은 '로린 마젤'은 "아리랑 연주 후 북한인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라며 남북통일에 대한 자신감도 느껴졌다"고... "음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렇다.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 곳곳의 한인 오케스트라와 상호 방문을 구체화해 보고 싶다. 한인 월드 오케스트라협의체라도 발족하면서 말이다.

편지시에서
한양초

'만당홍소(滿堂哄笑)' 하는 새해 됐으면

이재경 <편집부국장>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웃음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우리 조상들은 웃음에도 격(格)을 부여하여 방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흡족하게 웃는 만당홍소(滿堂哄笑), 깔깔거리며 한바탕 크게 웃는 가가대소(哈哈大笑),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박장대소(拍掌大笑), 즐거운 표정으로 활짝 웃는 파안대소(破顏大笑), 배를 부여잡고 몹시 웃는다는 포복절도(抱腹絕倒) 등으로 단계적인 인격을 부여해 왔다. 사실 웃음은 스트레스의 '천적'이자 그 어떤 항생제보다도 강

력한 힘을 발휘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도르핀과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수명이 이를 동안 연장된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또 웃음 연구학자 리버트는 웃는 사람의 혈액을 분석해 본 결과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오해와 시기, 독선과 아집이 없는, 대한민국과 750만 해외 한인 동포들 모두가 '만당홍소(滿堂哄笑)' 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레스크칼럼

박완규 <편집국장>



이렇게 사물이 죽어버린 자연 속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엄격성을 터득한 듯하다.

겨울 별판은 흡사 묘지와 같다. 봄의 향기도, 여름의 풍성한 잎새들도, 가을의 황금빛 물결도 모두 서릿발 같은 대지의 냉정한 기운 아래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여전한 햇살과 맑은 공기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은 봄의 유혹도, 여름의 열정도, 가을의 풍요도 모두 사라져 버린 자연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으므로 견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구둣발 소리와 꺾음을 발갥게 데우는 바람 소리만 들린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있는 자신의 몸과 정신이 살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뒤뚱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느 부위가 고장나 있는지 발견하게 되

가가 도시 한가운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오염된 공기와 각종 소음들 때문에 맑은 사색이 깃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번잡한 도시를 떠나 이름 없는 별판의 논두렁 길을 걷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때의 나는 즐거운 국외자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역사의 방관자가 된다. 나는 문명과 역사 그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길을 걷는 것이다.

길게는 100년이 넘도록 소외되고 팔시를 받던 해외 한인 동포 사회가 늦게나마 참정권 회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은 데 대한 자긍심도 크겠지만 한편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치권의 표밭으로서 정치세력화 하려 하고 이에 편승해 권력욕에 사로잡힌 몇몇 한인들 모습에서 쓸쓸한 비애마저 느끼게 한다.

그렇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나의 겨울 들녘 산책은 은연중에 발걸음이 깊어진다. 역사적 전환기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교차하는 민감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각 교민 사회 한인들의 의식과 정서상태가 오히려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약삭빠른 걸음거리로 바빠 움직이거나 불안한 심정으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모든 해외 한인 동포들에게 언필칭 겨울 별판으로 나가기를 권유하고 싶다. 세상 눈치보면서 성급한 기대나 박탈감을 가지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향해 한번 걸어 보라고.

겨울 들녘에 서서

해가 바뀔 때마다 겨울 들녘을 가로질러 산으로 향한다. 찬 바람에 시린 손을 비비며 걷다 보면 햇살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구둣발에 밟히는 매마른 대지의 감촉이 뒷덜미까지 차갑게 전달된다.

그러면서 내 정신과 몸 구석구석 혈렁하고 뒤송송해져 버린 곳에 어김없이 칼바람이 밀고 들어와 얼음뚱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동시에 세상 속에 부대끼면서 열나고 부었던 몸이 차츰 가라앉고 아프게 맺힌 기억이 스르르 풀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보이고 세상과의 거리가 느껴지면서 냉정을 되찾게 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대표작 ‘해변의 묘지’는

러시아 영화감독 타르코프스키의 일기장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부패한다.”

인간이 도시를 세우고 문명의 편리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이 약화되고 정신이 조금씩 부패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들 말하지만 다들 그렇게 출근 길을 찾아 헤매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잠들 집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별야만 하는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무제한 난타전 양상이다. 이런 이전투구의 인생이 문명을 이루고 역사로 기록된다면, 겨울 논두렁은 역사를 비껴가는 또 하나의 길일 것이다.

고, 온갖 망상들이 떠올라 차가운 공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겨울 산책은 바로 이런 자기 정화의 길을 걷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인들은 산책을 삶의 필수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시의 교통망 속에서 산책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도시는 차들로 넘치고 땅 밑까지 지하철 인파들로 득실거리며 흠을 밟고 걷는 느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걷는 시간은 급속도로 짧아진다.

걷는 행위조차도 계단이나 복도에서 누군가를 향해 가는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래서 걷는 도중의 사색과 자기 성찰의 시간은 없어진다. 간혹 누군

시론

김형남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많은 사람들이 ‘평천하(平天下)’의 꿈을 꾸다. 평천하라고 하여 대권을 잡는 정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인의 경우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일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브랜드인지도를 전국적 브랜드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법.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다. 수신(修身)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확산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안 하면 원시인 취급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세상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가입회원이 6억명을 육박할 정도다. 이러한 사람의 바다에서 많은 기회를 엿보고 평천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사람의 바다에서 개인브랜드를 확립하는 길은 역시 수신(修身)이 필요하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언을 말했다. 그렇다. 아는 것이 브랜드의 힘이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 것이 브랜드의 힘을 좌우할까?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어 온 철학적 명언 중 하나인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적 문구가 빛을 발하게 된다. 삼단논법에 의하여,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집약한 명구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GNOTHI SAUTON)’라는 말은 원래 아폴론의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문구인데 소크라테스가 인용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은 외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주의 원리를 묻던 그리스 철학이 존재의 내면으로 향하게 된 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한다. 철학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다. 즉 자신과 자기 존재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소크라테스는 또 ‘영혼의 수련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근거는 바로 영혼의 가치에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에서 자신과 자

기 근거에 대한 물음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내면(영혼의 차원) 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물음은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초월)에 대한 물음이라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브랜드학’의 창시자이자 대가중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는 형이상학이며, 내면의 철학, 영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내면의 빛을 찾아야 한다.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를 빛나게 하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한다. 자기다움, 자기스러움을 통한 개성을 확립하는 것이 개인브랜드 구축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에서 생존하는 법이다. 남과 다른 나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진정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원석 상태인 나를 밝게 빛나는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버리기다. 커팅(cutting)의 기술이다. 좋은 다이아몬드의 기준인 4C의 하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Cut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무엇을 덧입히려려 한다. 그러나 반대로 가야 한다. 자기답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벗어던지고 버려야 한다. 버리고 비워서 온전한 자기 자신만의 빛을 발견해서 절차탁마해야 보석이 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SNS시대의 자기브랜드 구축)

재미있는 漢詩 이야기

子規(자규)

김시습(金時習)

千疊峯頭月欲低(천첩봉두월욕저)
聲聲偏向耳邊啼(성성편향이변제)
不如歸去將何去(불여귀거장하거)
故國天遙只在西(고국천요지재서)

첩첩이 산봉우리에 달이 지려하는데
소리소리 한편에서 귓가로 들려오는데
돌아감만 못하다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고국 하늘 아득하나 마음은 서쪽에 있다



사설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가 한 큰 일

내달 18일부터 LA에서 연례대회를 개최하는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는 지난해 큰 일을 하나 했다.

LA 초대 총영사의 아들인 민병수 변호사와 김승리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다.

이 단체는 지난해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어교재를 만들고, 디지털북으로도 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이중언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이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도록 초중고에서 영어외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서울을 잠시 들른 민병수 회장에 따르면 남가주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많다고 한다. 남가주에 한인들이 많지만,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안되겠다 해서 재미한인들이 힘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이고, 후원자들이 거들고 나서면서 세계한인교육자협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공립학교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채택하도록 조직적인 운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재수 LA총영사 등 우리 공관도 적극 지원을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다. 교재였다. 한국에서 가져간 교과서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없었다는 얘기다. "경복궁으로 가려면 지하철 몇호선을 타고 가는가" 등등의 내용은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활속의 지식이지만, 미국의 현지 실정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 일도 시작했다고 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방학내

내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매달렸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지난 9월학기부터 미국 공립학교서 사용된 디지털북 교재였다. 이들의 막대한 수고로 인해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한국어교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어를 채택하는 공립학교를 늘리는 것.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모이는 것이 다음달에 열리는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 연례대회라고 민병수회장은 소개했다.

본지는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의 일에 큰 박수를 보내며, 본지 또한 이 단체의 활동에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기꺼이 할 생각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광규 전 서울대 교수는 미국 공립학교의 이중언어프로그램에 한국어를 채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본지가 연중 캠페인으로 이를 다룰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나아가 본지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현지의 실정에 맞게 우리말 교재를 만들었듯이, 중남미와 대양주,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한인 2세들을 위한 교재도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지의 선생님들과 뜻을 가진 분들이 힘을 모으기 바란다.

한국 정부도 이 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한인 2세들이야말로, 한민족의 보배이자 밝은 미래를 만드는 큰 자산이다. 그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리게 해서 안된다.

나라 망신, 필리핀 연수 어린이 억류

최근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110여명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10여일 가까이 억류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들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업허가증(SSP)을 갖지 않아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 내 연수에 필요한 학업허가증을 얻는 비용은 1인당 15만 원이다. 그 비용을 가로채 학생들을 불법상태로 있게 한 학원 관계자들의 욕심이, 결국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연수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공포심과 굴욕감을 안겨준 것이다.

코 묻은 돈에 눈이 멀어 어린 아이들의 최소한의 신변보장조차 외면해버린 그 모리배들의 추잡스런 행태를 보면서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으로 필리핀 정부는 조만간 학생들에게 여권을 돌려주고 이달 안에 언제라도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학생들이 바로 억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정부는 그러나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은 계속 조사한 뒤 추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학원 관계자들이다. 그들은 해외에서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데다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나라 망신을 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 당국에 의해 추방당해 귀국하면 국내법을 적용해 가능한 한 무게게 죄를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보면 초·중학생 어학연수가 우리나라에 돌림병처럼 번진 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유치하는 저렴한 해외연수에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지적됐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심심찮게 터지는 데는 일정부분 학부형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과연 내 자녀에게 어학연수가 꼭 필요한 건지, 아이도 원하는 지 명확히 한 뒤, 정말 제대로 믿고 맡길 만한 학원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흔하게 쓰이는 말도 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짐짓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교육환경'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부실한 어학연수를 부추기는 학원들의 모리배 짓거리에, 남의 애가 하나까 우리 애도 시킨다는 선부른 경정의식이 결합돼 이번 사건과 같은 황당한 꼴을 당한 것이다.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허세, 돈 벌이에 눈이 먼 몰지각한 장사치들로 인해 동심을 다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의 자성과 더불어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을 당부한다.

추천재력장

새해는 달라지고 믿음이 가는 외교부 됐으면

이승호 <편집부국장>



지난 해 유명한 장관 딸 특혜비리 등으로 한바탕 파란곡절을 겪었던 외교통상부가 어느 해보다 바쁜 연말을 보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유엔의 규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강 외교, 중국 어선 침몰을 둘러싼 한·중간 외교마찰 등 국익과 직결된 현안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한 외교부 관계자의 "우리 외교역량이 총체적으로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 과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적지

않은 외교관들의 눈과 귀가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있어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연말 인사와 관련, "아직도 일부 직원이 외부인사를 동원해 인사청탁을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초 재외공관장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리자 좌천될 위기에 몰린 해당 직원들이 정치권 등을 통해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교부의 인사잡음은 고위 간부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사석에서 "과장급들이 험지(險地)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내가 화를 많이 냈다. 외교부에서 제대로 크려면 이번에 반드시 아프리카를 한번 가야 한다고 충고했는데도 별 소용이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한 과장급 직원의 변명은 이렇다. "솔직히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직원이

누가 있겠느냐. 치안이 불안해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아이들 교육여건도 마땅치 않은 데서 3년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물론 발령이 난다면 험지에서 근무할 각오가 돼 있다. 다만 공평해야 한다"며 인사에 있어 관행적인 불공평성을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김 장관이 수차례 험지 공관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냉·온탕' 순환 인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젊은 외교관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사는 공평하지 않고, 정실과 로비가

통한다"는 인식이 그만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험지를 싫어하는 외교관을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등 떠밀려 아프리카로 간 외교관들은 3년간 달려만 바라보다 빈손으로 올 것이다.

거듭 불쌍사나운 꼴을 보이고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떠들며 쇄신책을 내 놓은 지 얼마나 됐는가. 새해에는 정말 달라지고 믿음이 가는 외교부를 보고 싶은 게 비단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닐 것이다.

worldKorean 서울 다 10036

발행인·편집인 이종환 편집부국장 이승호·이재경 발행처 월드코리아신문사 본사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1002호 전화 +82-2-6160-5352 팩스 +82-2-6160-5353 e-mail wk@worldkorean.net 홈페이지 www.worldkorean.net	편집국장 박완규	본지 전제 계약제휴사 유료저널 TK타임스 상하이저널 태권도타임스 좋은아침 마살이조월드 한겨레저널 카자흐스탄 한일일보 흑룡강신문 조글로 미디어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한인교육자협회 연례 국제회의’

한인 동포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시** :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 **장소** : 미국 로스앤젤레스

IKEN IS ...

INTERNATIONAL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IKEN)는 미국내의 한국어 듀얼프로그램(KDLP)의 교사들과 학생을 지원하고자 창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IKEN의 KDLP 교사들은 한국어교육의 세계화라는 대명분 앞에서 KDLP 교사들의 장점을 응집하여 2세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IKEN IS ...

KOREAN

KDLP는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고 다문화주의를 장려하며, 학생들은 K-12학년에 걸쳐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읽고 쓰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 어학과 학업에 혜택을 주어 글로벌 시대에 합당한 경쟁력을 키우게 해준다.

IKEN IS ...

EDUCATORS

교사들은 한국인 2세들에게 어려서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반면, 외국 학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도와준다. 한국인 2세와 외국 학생들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IKEN의 주목적이다.

IKEN IS ...

NETWORK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뿌리교육과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상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역사,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IKEN의 취지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한인교육자협회

680 Wilshire Plac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9-2133 혹은 (909)973-0449

info@ikeneducate.org 혹은 mrssungkim@yahoo.com